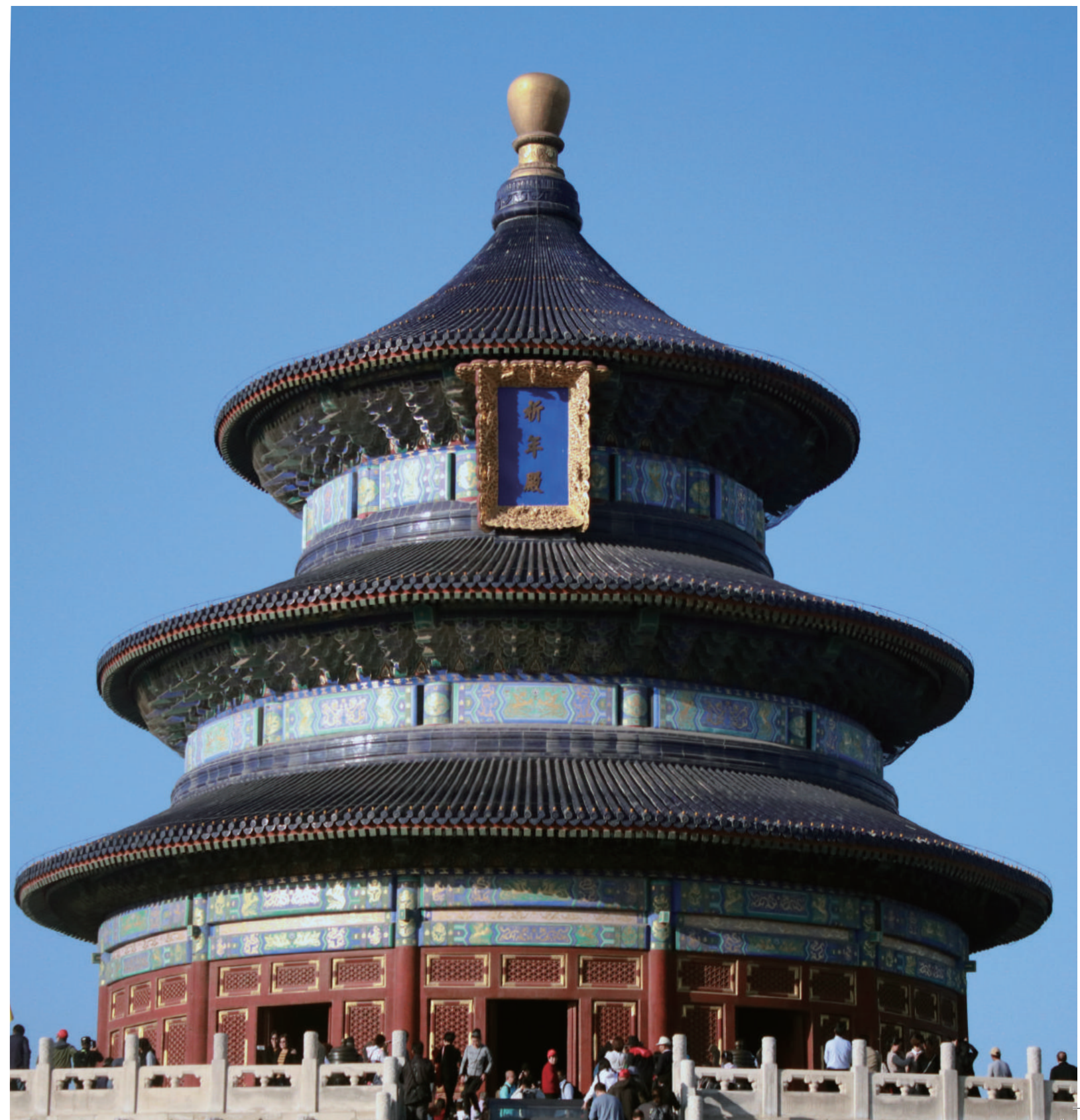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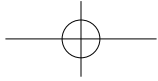


INHA UNIVERSITY

Vol.12

HISTO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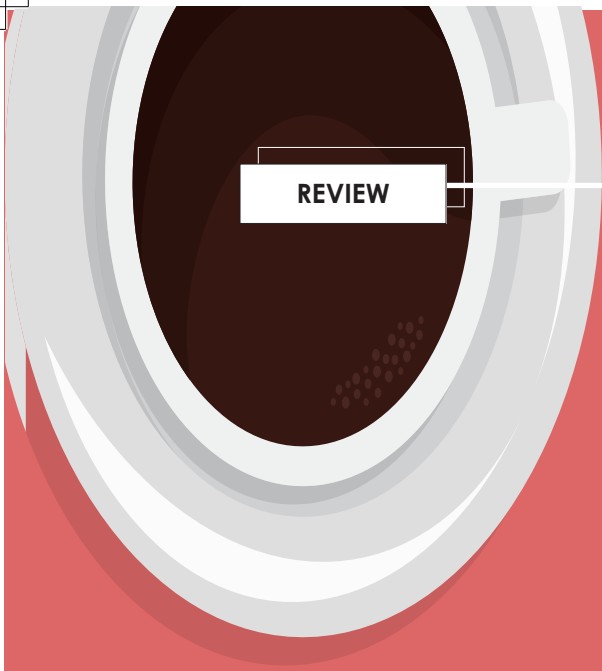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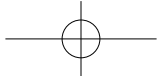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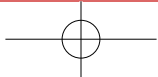
Histo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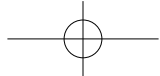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Vol. 12

학과의 소리	학생회와 학회의 소리	02
답사의 추억	중국 북경 답사	10
해외통신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진연(17)	46
논문을 마감하며	외국사의 설움을 딛고-이예슬(15)	52
졸업생에게서 온 편지	꿈은 모르겠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취업은 해야 할 때-박지현(05)	55
편집자주	유윤이 / 전지혜 / 장서영 / 허채영	60
조교 한마디	이동륜	61
학과소식 / 장학제도	학과소식 / 장학제도	63



학생회와 학회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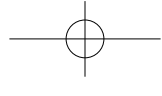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학생회의 소리

◆◆◆ 43대 사학과 학생회's REVIEW

안녕하십니까. 43대 사학과 학생회장 황환희, 부학생회장 지수빈입니다. 어느덧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주신 사학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신년에 하고자 마음먹은 크고 작은 목표들, 모두 이룰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부학생회장으로서 학교생활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1학기 개강 전, 설레는 마음으로 두 번의 정모와 수강 신청 설명회를 통해 새내기 친구들을 처음 만났고, 많은 준비 끝에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왔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새터를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서로서로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과방에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대여 물품들을 준비하였으며, 전공강의 실 옆에는 게시판을 부착했습니다. 개강 후에는 애틀을 통해 사학과 학우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답사탁본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정기 춘계 답사도 다녀왔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주점을 대체하여 사학과만의 독자적인 행사가 없을까 여러 학우와 상의한 끝에, 인하대 후문 가게를 빌려 사학인의 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회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나르며 주점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선후배 간의 협력과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학우와 소통하려 노력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올 한해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달이 있는 행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조금 쉴까 싶으면 기말고사,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벌써 2019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버린 까닭에 제가 학과 행사를 잘 이끌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행사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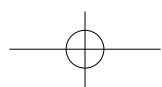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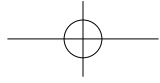
을 때마다 도와주었던 고마운 손길들이 생각납니다.

여러 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취업설명회와 동문 체육대회였습니다. 제가 행사 주관자였지만 저도 처음 참여해보는 행사였기에 준비 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사 전날까지 해외 답사 기간이었고, 그 전 주는 중간고사였습니다. 그렇기에 11월 행사를 미리 10월 초에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온전히 학부생 대상이 아니라 88년도 졸업생 선배님부터 가장 빠른 17년도 졸업생 선배님까지 모이는 자리였기에 부담이 더욱 컸었습니다. 더욱이 토요일 행사라는 점에서 학우분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고, 체육대회의 특성상 남학우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많은 학우와 선배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회식 자리에서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취업과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처음 만난 사이지만 원래 친했던 사이처럼 선후배 간의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를 도와준 학생회 일원들과 참여해주신 학우분들,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게 가장 무거웠던 행사를 가볍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학우분들의 모든 희망 사항을 듣고, 더 다양한 직업군의 취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입니다. 내년에도 위와 같은 행사가 진행된다면, 다음 학생회장을 도와 더 나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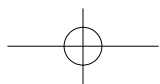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1년 동안 학과 운영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과장님! 총회, 학술 세미나 등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들에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영호 선생님, 윤승준 선생님, 이준갑 선생님, 박은경 선생님, 최병욱 선생님, 우경섭 선생님 항상 격려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서 단대 운영회 회의에 나갈 때, 다른 학과 임원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륜 조교님! 학과 행사 및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업무적인 취지의 도움이 아닌 진심으로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교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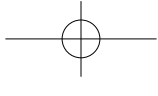
다음으로 우리 43대 학생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준 덕분에 1년 학과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 고집은 세서 고생 많았을 텐데 잘 따라와 주고, 마지막까지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회장 지수빈 학우, 3학년 과 대표 유윤이 학우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 불평을 가장 가까워서 들어주면서도, 학생회 업무 또한 처리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학회장이면서 기록부장을 맡았던 하재윤 학우, 2학년 과 대표이자 총무였던 김예령 학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학과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홍보부장 전지혜 학우, 기획부장 김준형 학우, 체육부장 김경환 학우 모두 고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항상 모든 일에 참여하고, 힘든 내색 없이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답사 준비와 답탁 일정을 소화하는데 고생 많았던 답사탁본부장 정우혁 학우 또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마집행부인 예진이, 강현이, 유신이, 고은이, 은선이, 세민이, 정연이, 예림이, 경민이, 서영이, 수빈이 까지 모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학생회 일에 참여하고,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학과를 이끄는 축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추억이 학과를 위했던 여러 가지의 노력과 그로 이어진 성숙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43대 사학과 학생회는 2019년을 마무리하고 떠나갑니다. 2020년에는 하재윤 학우와 김수빈 학우가 꾸린 사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학과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소리

허
채
영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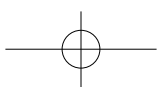
◆◆◆ 인하역사연구회 학회장's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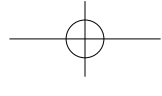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2020년 학회장 허채영입니다. 학회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신하여 2학기 학회를 마무리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신 전하는 글인 만큼 왜곡하여 전할까 봐 우려되지만, 학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봐온 것들을 토대로 학회의 전반적인 성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020 학회의 새로운 목표와 발제 방법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학회 '사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사랑의 목표는 '진입장벽 낮추기'와 '학술적 성취 높이기'였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학회 부속 소모임 '코기토(역사학)', '차이나는 중국사', '독서 소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 소모임장과 회원들은 1, 2학년들로 구성되었으며, 본 활동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배웠기에 학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욱 유연한 학습 방식을 취하여 회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예로 '코기토'에선 플립러닝과 하브루타를 통한 역사학 입문 수업, '차이나는 중국사'에서는 『아틀라스 중국사』를 선독 후 질문, 토론하는 형식으로 중국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소모임 활동은 학과 사람에게 학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본 활동 내에서도 회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학술제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술제를 개최한 이유는 학회의 학술적 성취를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는 사학과 내의 학술 행사를 만들고자 하는 학우들의 열망이었습니다. 학술 세미나의 대주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발표하는 3가지의 주제를 모두 새로운 대상 혹은 주장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가지 주제는 조율재 학우의 「1948년 인천 부내 단선방해사건의 원인 규명 - 도시 공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주 학우의 「효종 재위기





(1649~1659) 조선·청 외교의 양면성 분석」, 오현석 학우의 「위정척사파의 개화론 수용과 그 영향 분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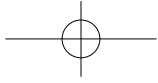
첫 번째 발제자인 조율재 학우는 도시 공간 분석을 통해 인천 부내 단선방해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지역사적 관점에서 비교적 인식이 낮은 인천 내 510선거와 방해 공작에 대해 환기하고, 도시사적 관점에서 도시 구조를 해체 및 분석함으로써 70년 전 도시 인천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동주 학우는 효종 시기 현실적 외교 노선의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조선과 청의 관계 변화 양상을 풀어냈습니다. 효종 재위기의 조선과 청의 외교 양상은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선은 청의 요구를 수용한 것만 것 아니라 조선의 입장을 반영시키며 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현석 학우는 위정척사파의 개화에 대한 사상적 변화를 예시로 그 양상과 의미를 탐구하였습니다. 위정척사파 또한 근대 국가 건설을 시도하고 고종 정부와 연대하여 개화와 항일 투쟁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위정척사파를 시대착오적 집단이라 단순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고생하신 하재윤 학회장님, 발제자 김동주, 조율재, 오현석 선배님들, 토론자 김예령, 김준형, 김경환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외에도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님,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부분 또한 존재했겠지만, 학회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후배의 관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앞으로의 사랑 학회장으로서 저의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학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역임하게 되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저와 함께 학문적 열의를 다지는 학회원들이 생긴다는 것은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20 학회의 가장 큰 목표는 ‘유연한 발제 만들기’입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 발제 주제 선택은 논문과 단행본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제 주제에의 선택의 폭이 유연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2020에는 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발제 또한 가능하게 바꾸어 주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말하기 발표 형식에서 PPT, 동영상 등 여러 발표 방식을 취할 수 있게 하여 발제자가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회에서 진지한 탐구 또한 필요하지만, 학회원들의 학구열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문 탐구의 전문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지만, 선배님, 교수님께 여쭙어 가며 학회의 본질적인 성격 또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발맞추어가야 할 2020 학회 부회장 민희, 집행부원들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학회장이지만 학회의 목표와 저의 신념들을 항상 되돌아보며 올바른 길을 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선배님들, 동기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며

정우혁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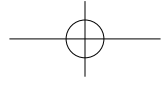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 35대 답사탐본부장's REVIEW

안녕하십니까, 35대 답사탐본부장 18학번 정우혁입니다. 어느새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은 정말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저로서는 답사탐본부장으로 보낸 한 해였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답사탐본부장을 맡기로 해 하나하나 배워나갔던 게 어제의 일만 같고, 새내기 때 부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던 게 엇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답사탐본부장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일 년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여러 답사탐본부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한 부원들에게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처음 부장을 맡게 되었을 때는 자신감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기우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집행부와 부원들이 맡은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 주었기에, 1년간의 활동을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특히 고생한 집행부 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집행부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흔쾌히 수락해주어 고맙습니다. 답사 코스를 위해 밤늦게까지 회의하면서도 불평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맡은 일들까지 열심히 해주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틈틈이 좋은 추억 또한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답사탐본부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한층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학업과 학회 일이 겹쳐 정신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앞으로 살면서 돌이켜볼 때 어느 때보다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만 줄이며, 짧게나마 일 년 동안의 답사탐본부 활동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글에 모두 담을 수 없는 추억들이지만 여러분이 읽으며 다시 한번 해내온 것들을 추억하고,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1학기의 주요 활동은 일일 답사, 정기답사, 탐본이었습니다. 동계 방학 때 첫 일일 답사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명동 일대를 방문 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일일 답사는 고궁으로, 신입생들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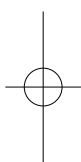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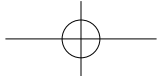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게 걸으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강 후에는 ‘지역문화탐구 1’ 수업을 수강하며 박은경 지도교수님과 함께 강원도 일대 정기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집행부들과 사전 답사를 다녀오는 것을 시작으로 답사 자료집을 제작하고 여러 코스를 재차 확인하는 등 완벽한 답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강원도 일대를 돌며 하나하나 준비한 코스를 지나칠 때마다 고생한 순간들이 기억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각 부원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해주었기에 성공적으로 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인천 중구 개항장으로 세 번째 일일 답사를 다녀왔으며, 하계 방학 때는 스터디를 열어 탁본을 진행했습니다. 탁본 장소는 이천 서구 공촌동에 위치한 심즈 신도비였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탁본이라 우여곡절 또한 많았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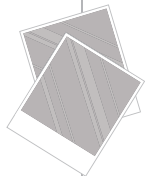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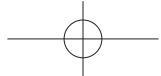
2학기에는 일일 답사와 해외 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강 이후 네 번째 일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청 일대로, 종교계의 민족 운동이 주제였습니다. 이후엔 중국 북경 해외 답사를 위해 개설된 ‘글로벌역사콘텐츠탐구’ 수업을 수강하면서 답사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해외로 가는 답사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부원들과 함께 움직이며 중국의 여러 유적을 탐구하는 것은 설레고 재밌었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이후에는 답사지에서 부원들이 찍은 사진들을 모아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된 사진을 보면서 답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도 간접적으로나마 답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게 한 것 같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수원 화성으로 일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였지만 많은 부원이 참여해 즐거운 일일 답사가 되었습니다.

답사탁본부에 들어가 부원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부장을 내려놓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답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사탁본부의 일일 답사를 포함해 사학과와 모든 답사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 년 동안 함께 활동하며 고생한 준형이, 윤이 누나, 지혜, 예령 누나, 경환이, 지윤이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36대 답사탁본부장을 선뜻 맡아준 경민이와 집행부 친구들도 정말 고맙고, 일 년 동안 답사탁본부 활동 같이 하면서 잘 따라와 준 답사탁본부 부원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도움 주신 사학과 교수님들 감사드리며, 이동륜 조교님, 답사탁본부 선배님들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0년 36대 답사탁본부활동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북경 답사 2019. 10. 29 ~ 1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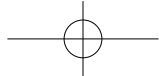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답사소감문

김경환(18)

2019년 2학기 사학과 정기 답사는 국내 답사가 아닌 중국으로 가는, 해외 답사였다. 흔히 갈 수 있는 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고민도 없이 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평소에 또한 중국과 관련된 역사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답사를 더욱더 흥미롭게 준비하고 임할 수 있었다.

말로만 들어보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곳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답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목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내 답사만 하더라도 신기하고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해외 답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천안문 광장, 자금성, 이화원 등 사진으로 보았던 장소들을 직접 가보니 답사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 하나라도 더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최대한 많은 곳을 보고 오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만리장성을 볼 때 그런 마음이 가장 컸다. 처음 만리장성을 바라만 봤을 때 크게 느껴지지 않던 규모가 성을 직접 오르니 매우 와 닿았다. 거용관으로 들어가 경사진 코스와 완만한 코스 중 완만한 곳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이 들었다. 단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해보니 저절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단순히 책에서 만리장성이 몇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몇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적혀있는 것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만리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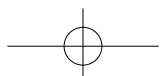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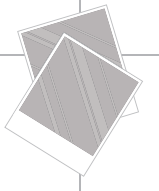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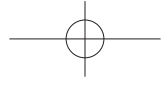
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본 것이었지만 그것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만큼 만리장성의 규모는 매우 컸고,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보지 못하고 내려왔다.

답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답사지들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볼 수 없었다. 특히 중국 국가박물관 발제를 준비하면서 답사를 하러 가서 꼭 보고 싶었던 것이 ‘고대중국기본전열’ 전시관의 청동기 유물들과 ‘부흥의 길’ 전시관 입구에 있는 부조였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청동기 유물들은 보았지만 정작 부흥의 길에 있는 부조는 보지 못하고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녀온 답사지들 모두 못 봤던 곳은 다시 찾아가서 보고, 봤던 곳들 역시 또 한 번 방문할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였다. 해외 답사를 다녀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용과 일정 등이 국내 답사보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해외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내 답사를 떠나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해외 답사 또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해외 답사를 또다시 할 기회가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고 싶다. 과연 이러한 경험을 인하대를 졸업하기 전에 또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번 답사는 매우 유익하였다.

이런 훌륭한 답사를 위해 시작부터 답사가 끝난 이후 사진전을 개최하는 과정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 먼저 답사 기간 내내 우리에게 유익한 설명을 해주신 이준갑, 우경섭 교수님과 답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조교님, 사진전을 비롯해 답사와 관련해 많은 고생을 한 답사탁본부 부장과 부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2019 추계답사, 중국 베이징 -답사 사진을 다시 매만지며

김민지(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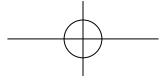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2019년 10월 29일(화)부터 11월 1일(금)까지 나흘 동안 저희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다녀왔습니다. 26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를 이끌고 지도해주신 이준갑 교수님과 우경섭 교수님, 이동륜 조교님, 답사탁본부장님을 포함한 많은 답사탁본부 부원들, 그리고 현지식 스타일로 많은 설명을 해주셨던 가이드분께 감사의 표시를 전하면서 저의 소감문을 시작합니다.

평소 중국으로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처지에서 이번 답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나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해외 답사는 처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답사 내내 행복했습니다. 물론 답사 중 쉽지 않았던 중국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같이 답사하는 분들과 함께 영어와 미숙한 중국어를 사용해가며 그 상황을 헤쳐나갔던 것도 당시 대화하는 사진들을 보면 생생히 기억나는 듯합니다. 일정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였고, 저를 포함한 이번 답사 기간의 많은 분과 나누었던 추억을 새겨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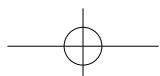
일정을 모두 다루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몇 군데만 소개하며, 답사 같이 가신 학우분들에게는 기억의 회상을, 아쉽게 같이 가지 못한 학우들에게는 정보의 공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천안문광장입니다. 천안문광장은 제 발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일정 중 가장 처음으로 방문한 장소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어, 대규모 행사를 하였던 국경절의 잔해물들이 광장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빨간색 조형물들을 보며, 중국인의 국가 애(愛)를 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답사가 끝나고 ‘글로벌역사콘텐츠탐구’ 수업 시간에 영상 발표를 준비하면서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다시 살펴보면서 답사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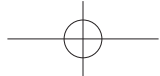
또 다른 장소를 하나 꼽자면 다른 장소보다 만리장성 거용관을 말하고 싶습니다. 만리장성에 오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 모두 경사가 상당했지만, 상대적으로 왼편이 완만하다고 합니다. 가이드분의 말을 들으니 괜한 욕심에 급경사인 오른편을 가기로 하였고, 그 결정은 길을 내딛기 시작한 지 3분, 아니 1분 만에 후회하였습니다. 약 4~50cm 되는 높이의 계단은 그 폭도 한 발이 겨우 내디딜 정도였습니다. 경사도 대단했으며, 고소공포증이 있던 저는 그제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같이 올랐던 류민우, 이나운 학우는 물론 앞에서 열심히 올라가는 세 명의 남학우를 보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물론, 저만 중간에 포기하여 계단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힘들게 올라가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아마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걷고, 중간에 목도 말라 물을 사서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도 장소마다 시간이 부족하여 자세히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우도 분명 매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직접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업으로만 들었던 중국, 책으로만 봤던 현장과 유물 등 저희가 방문한 답사지는 생각보다 더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나 가는 길은 힘들지만, 그 힘들음을 참으니 내려다보는 전경은 무척이나 아름다워 사진 찍을 겨를도 없이 황홀했습니다. 또 단순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나무 하나에도 고사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답사가 아니었다면 이를 알았을까, 다시금 답사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수 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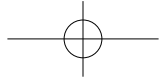


베이징 답사를 다녀오며

김예령(18)

베이징의 첫 이미지는 사실 그리 좋지 않았다. 주변 많은 친구의 베이징 후기를 들어보면, 좋았다는 말보다는 생각보다 실망이었다는 말이 많았다. 그래서 2019년 2학기 정기 답사를 베이징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렘보다는 걱정이 컸었다. 답사는 항상 갔었지만 답사 수업을 들은 건 이번 학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가자는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2학기가 개강하고, 답사 계획서를 받고, 수업이 매주 진행되는 동안 앞서 가졌던 베이징에 대한 걱정은 기대로 바뀌어 갔다. 첫 해외 답사를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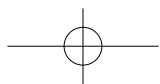
새벽 5시에 일어나 공항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실감이 많이 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에 왔다는 것이 확 와닿았다. 인생에서 해외여행을 처음 간 곳이 상하이였는데, 상하이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다. 첫날엔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경산공원, 왕푸징 거리를 둘러보았다. 첫날 코스가 3박 4일 코스 중 가장 기대되었는데, 내가 발제할 곳이 있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이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다. 천안문 광장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근현대사 부분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장소였기에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했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역시 눈으로 보아야 실감이 났다. 광화문 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정말 컸고, 이름에 걸맞게 광장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거기서 보이는 마오쩌둥의 액자도 직접 보니 크기가 실감 났었고, 중국 사람들의 마오쩌둥에 대한 애정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자금성도 정말 놀라웠다. 이곳에 조선 사신들이 왔을 것을 생각해보면, 그 규모에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갔다. 발제하시는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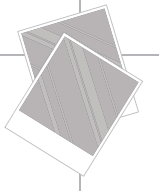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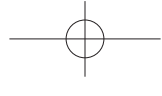


우분이 조선의 사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금성을 둘러보면 색다른 기분일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에 공감이 갔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본격적인 중국 유적들을 탐방하였는데,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지만, 직관적으로 인상 깊었던 곳은 만리장성, 이화원, 천단공원이었다. 만리장성은 베이징에 왔다면 한 번쯤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직접 가보니 성 때문에 진나라와 명나라의 멸망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완만한 코스로 올라갔음에도 다리가 너무 아팠다. 심지어 내려갈 땐 등산을 해보면서 처음 겪는 공포였다. 이화원은 서태후의 별장에 걸맞게 경치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웠다. 특히 곤명호를 보면서 이 호수를 보며 휴식을 취했을 서태후가 부럽기도 하였다. 천단공원은 중국 답사 중에는 크게 인상 깊지 않았지만, 답사 후 ‘한국종교문화사’ 수업 시간에 천단공원이 나와 정말 반가웠다. 답사를 가보니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았다.

베이징을 답사로 갔다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개인적으로 베이징을 갔다면 이 많은 유적을 절대 보지 못했을 것이다. 확실히 수업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답사를 떠나서 오감으로 느끼고 오니 더 기억에 남았다. 일정이 빡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베이징의 많은 곳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또 국내에 비해 적은 인원이 베이징 답사를 하러 간 만큼 한명 한명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좋은 추억이 생겼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번 학우들과는 얘기를 섞기 쉽지 않은데 답사를 통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빨리 또 다른 해외 답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경험 중 하나였다.





중국의 낮과 밤, 답사의 낮과 밤

김종휘(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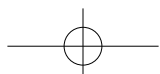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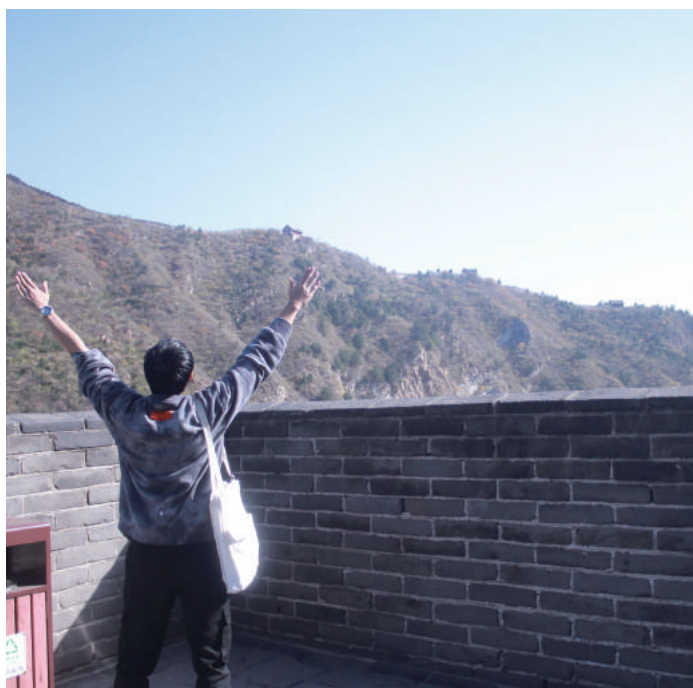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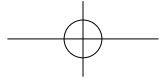
나는 16년도 1학기 답사 때 답사탁본부 부원으로서 참여한 학과답사를 시작으로 군 복무로 인해 휴학한 3학기 동안을 제외하고는 학과의 모든 정기답사에 참여했다. 답사하러 가면 강의실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직접 만지고 밟으면서 얻는 생생한 경험과 지식이 좋아서 항상 답사를 떠난 것이다. 15학번의 남진호 형과 함께 베트남 답사를 경험했었는데, 이번의 중국답사 또한 저번의 16년도의 베트남 답사만큼 훌륭한 경험이 되었다. 해외 답사에서는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기에 시야를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정치적·역사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 거리 또한 가깝기에 반드시 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 이번 답사를 통해 다양한 역사유적지 및 문화공간들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3박 4일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기간이었지만 중국의 방대함을 느끼기엔 다소 아쉬운 방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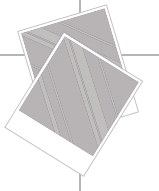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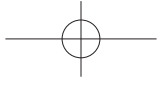
낮의 답사는 매우 훌륭했다. 경기도만 한 북경의 주요 역사유적지 및 문화공간들을 짝 차게 압축해서 일정에 녹여낸 부분이 특히 만족스러웠다. 여행사와 연계했기 때문에 자율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깔끔한 일정 조정과 경로의 단순화를 통해 답사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실용적이었다. 개인으로 갔다면 결코 소화하지 못했을 뻔했던 일정이었다. 매체를 통해서만 보던 불가사의한 유적지들을 직접 방문해서 느낀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갔을 때 과거 중국인들이 그 규모에 얼마나 압도당했을까를 상상해보았다. 고층 건물과 큰 규모의 건축물들을 항상 접하고 사는 나조차도 건축물에서 웅장함과 위압감을 느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이화원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는 잠시 서태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의 폭정이 만들어준 경치가 정말 고마워서 말이다. 798 예술구나 왕푸징 거리처럼 현대적인 중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의 방문도 무척 유익했다. 그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밟은 거리, 감상한 예술작품, 맛본 음식들은 기존의 답사들이 주었던 경험과는 또 다른, 새로운 그것이었다.

밤의 답사는 다소 아쉬웠다. 뻘뻘한 일정은 3박 4일 동안 무척 많은 곳을 경험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중국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갔다. 머물렀던 숙소가 뻘뻘한 고층 회사 건물들 사이에 있어서 밤 동안 자유롭게 어디를 놀러 간다는 것이 어렵기도 했다. 외국에 다시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은지라 한 번 방문했을 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적은 자유시간과 애매한 숙소의 위치가 이를 방해했다. 거기에 호텔 프런트는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했다. 보통 한국의 호텔에서 구사하는 기본적 영어 회화를 기대한 내 잘못이었으리라.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나와 그 룸메이트, 진호 형은 밤의 중국을 느끼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영어와 한국어를 써도 항상 중국어로만 답변해주는 중국의 불친절함을 이겨내고 밤거리를 나서서 손짓, 발짓, 몸짓을 동원하며 길을 묻고 물어서 결국 술을 구해냈다.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얻어낸 고량주는 이번 답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북경을 가보았으니 다음에는 상해를 한 번 가볼까 한다. 대륙이 주는 풍부한 경험이 다시 한번 기대된다.





처음, 그다음의 처음

김준형(18)

2019년 2학기 중국 답사를 통해서 나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봤다. 너무 설레었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던 아저씨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나를 챙겨주셔서 따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중국에 도착했다. 중국 공항에서 나는 입국 심사를 거부당할 뻔했다. 아무래도 여권에 붙은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느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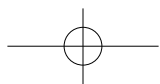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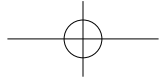
이후 이어진 3박 4일간의 중국 답사에서의 모든 일은 모두 내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다. 중국의 식사는 매우 새로웠고, 낯설었으며, 신선했다.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느꼈던 것과는 아주 달랐다. 또 중국의 거리도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막연하게 ‘같은 동양이니까 비슷한 느낌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동양 국가들 안에서도 각자만의 ‘풍’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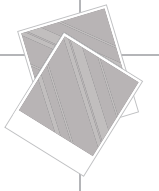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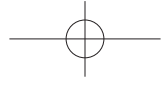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중국 대부분의 유적지는 계단이 너무 높았다. 특히 만리장성이나 불향각이 그랬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크기와 높이의 건축물들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 직접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고 느끼는 것도 많았지만, 일단은 너무 힘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 답사지는 곤명호, 천단공원과 왕푸징 거리였다. 먼저 곤명호는 온종일 높고 가파른 계단을 오른 뒤에 배를 탔던 호수였다. 오랫동안 고생한 후에 배에 타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다. 천단공원은 환구단에 올라 하늘을 본 기억이 남는다. 구름이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하늘만’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오랜만이었다. 왕푸징 거리는 야경이 굉장히 예뻐고, 길의 중간중간에 있는 빛나는 건물들과 큰 시계탑이 ‘멋있다’라는 느낌을 주었다. 평소 예쁜 풍경이 아니면 사진을 거의 안 찍는 내가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다’라고 느낀 답사지들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중국 답사는 처음이어서 다 낯설었지만 새롭고 즐거웠다고 느끼게 하였다. 학부생으로 있는 기간에 다시 겪기 어려운 해외 답사가 마침 좋은 시기에 열려서,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얻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에 남는 답사지는 곤명호, 천단공원과 왕푸징 거리였다. 먼저 곤명호는 온종일 높고 가파른 계단을 오른 뒤에 배를 탔던 호수였다. 오랫동안 고생한 후에 배에 타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다. 천단공원은 환구단에 올라 하늘을 본 기억이 남는다. 구름이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하늘만’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오랜만이었다. 왕푸징 거리는 야경이 굉장히 예뻐고, 길의 중간중간에 있는 빛나는 건물들과 큰 시계탑이 ‘멋있다’라는 느낌을 주었다. 평소 예쁜 풍경이 아니면 사진을 거의 안 찍는 내가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다’라고 느낀 답사지들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중국 답사는 처음이어서 다 낯설었지만 새롭고 즐거웠다고 느끼게 하였다. 학부생으로 있는 기간에 다시 겪기 어려운 해외 답사가 마침 좋은 시기에 열려서,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얻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로벌역사콘텐츠탐구 베이징 답사 나승환(17)

전 이번엔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을 답사가 하고 싶었고, 그중 하나가 베이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1년 전 상하이 답사를 다녀오면서, 베이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답사가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라는 말을 듣고 꼭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답사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 공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예고에 걱정했지만, 다행히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공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날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사진을 찍고 학생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 광장의 웅장함이 사진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역사유적지들이 전부 그랬듯이 역시 유적지들은 직접 방문해서 보았을 때 그 전율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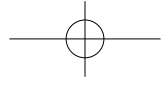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을 꼽자면 경산공원과 만리장성, 이화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힘들게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다음 날에는 일어나는데 저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곳의 경치는 상당히 장관이었습니다. 경산공원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산공원 아래에는 자금성이 넓게 보였습니다. 4~5시 사이 주황빛이 들면서 자금성이 시야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넓게 뻗어나간 장면은 거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다음 만리장성, ‘장성을 오르지 않은 자를 장부라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할 정도로 도전 욕구를 불태우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니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고 있다가 겨우 올라왔습니다. 주변의 장관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면서 날도 괜찮은 편이라서 푸른 하늘, 큰 산까지 깨끗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좀 고생이었지만, 올라오니 성취감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원도 불향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다행히 만리장성과는 다르게 계단의 높이가 일정해서 다리에 큰 무리는 없었지만, 만리장성에서 올라간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불향각 주변은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서태후의 별장이었기 때문에 건물들도 화려한 데다가 호수 덕분에 반짝거리는 빛도 멋졌습니다. 역시 답사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현지식도 향이 너무 강하지 않아 먹을 만했었고, 베이징 덕도 잘 먹었습니다. 휘귀도 1인 휘귀로 직접 음식을 끓이는 곳은 제가 처음 봤는데 나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학우들과의 술을 먹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답사지를 둘러보면서 시간이 너무 빠빠하여 금방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저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조율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다음 답사 때나 혹은 혼자 답사를 가 볼 때, 참고로 오래 둘러볼 수 있을 거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북경 답사를 다녀와서

남진호(15)

10월 28일 밤, 다음날의 답사를 위해 중회와 먼저 김포공항의 근처 숙소로 향했다. 개인적으로 다녀왔던 이전 두 번의 중국 여행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막상 전날이 되니 떨려왔다. 공항 근처 찜질방에서 선잠을 자고 집합 일정에 맞춰 공항으로 갔을 때는, 피곤했지만 설레는 마음에 피곤한 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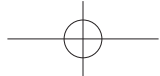
짧은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중국은, 한자와 중국어가 눈과 귀에 떠다닌다는 것 말고 아직 큰 감흥이 없었다. 우리를 마중 나온 가이드 선생님은 친근하기도 무뚝뚝해 보이기도 했다. 엄청나게 넓은 도로를 한참 달려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다. 일정상 국가박물관이 먼저였으나, 사정이 생겨 박물관 일정은 뒤로 밀렸다. 천안문 광장은 정말 넓었고, 웅대했다. 그래서 ‘대륙의 스케일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간 유적지에서부터 들었다. 천안문 광장을 지나 자금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지하도를 건너야 했고, 건넌 뒤에 본 마오쩌둥의 초상 역시 굉장한 크기로 날 압도시켰다. 첫날의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시작으로 4일 내내 모든 유적지는 그 스케일이 압도적이었다. 만리장성 거용관에서는 일부터 조금 더 가파른 길로 올랐는데, 높고 가파른 산이 그러하듯, 올라가는 것은 매우 힘들었으나 오른 뒤에 경치는 좋았다. 오르면서 계속 든 생각은, ‘오르기도 이렇게 어려운 장성을 쌓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고되고 위험한 노동이었을까’였다. 장릉과 이화원, 그리고 자금성까지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우리나라의 건축물과 다르게 유약을 바른 것 같이 반짝이는 황색, 청색, 적색등의 벽돌이 건축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공묘와 국자감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보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적 유적지에서 흔히 못 보던,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때론 장난감같이 보이는 그런 질감의 처리방식이 궁금했다.

798 예술구, 전문대가, 왕푸징 거리에서 시간이 짧은 건 매우 아쉬웠으나, 이게 패키지여행이지 싶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 와봐야겠다고 했다. 베이징 내에 혐오 음식이나 베이징 비키니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것대로 꽤 아쉬웠다. 미관상 혹은 위생상 좋지 않은 문화이지만, 내심 보고 싶은 풍경이기도 했으며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아쉬웠다.

금면왕조의 공연은 화려했고, 그래서 같이 본 학우들은 매우 마음에 들어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눈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공연인 것 같았으며 극의 개연성이 너무 없는 느낌이라 좀 아쉬웠다. 그래도 실내 공연장에서 300t의 물이 방류되는 장면은 꽤 인상 깊었다. 그런 공연인데 팝콘을 파는 것이 다소 생소한 경험이었는데,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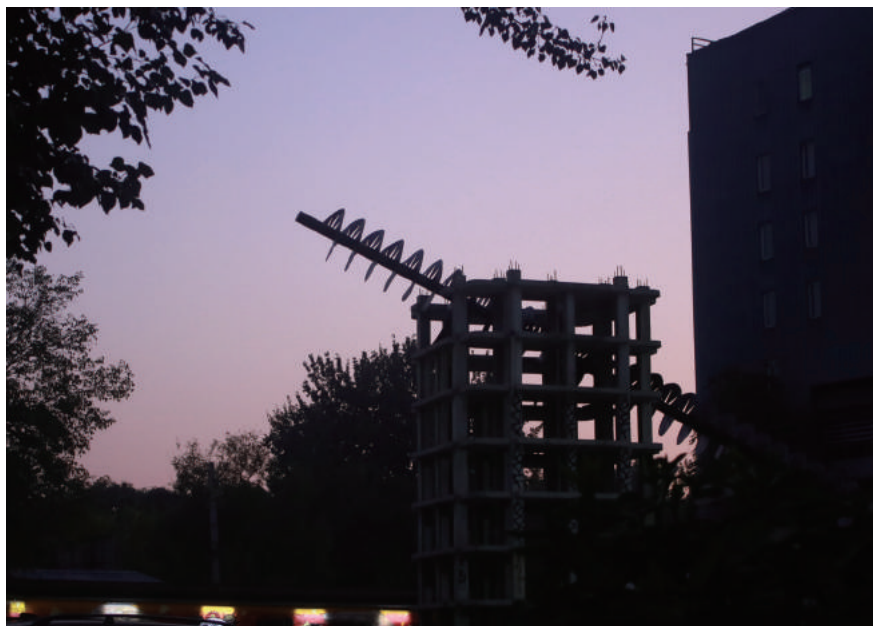
천주교 북당의 경우, 서양 양식의 성당 건물 앞에 중국식 정자가 위치한 것이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동서양의 조화와 불협화음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느낌이었다. 내부로 들어가는 초입의 스테인드글라스에 해가 비친 것을 보았는데, 믿는 종교는 없지만, 어제의 과음으로 힘들어하던 몸이 조금 힐링 되는 느낌이 들었다.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는 한 편의 그림책 같아서 보는 재미가 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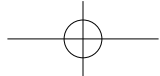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이전 두 번의 쓰촨, 상해 여행도 패키지여서 단체식당을 갔는데, 음식이 썩 맞는다고 느끼진 못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맞았던 것 같다. 다만 3일째부터 현지식이 슬슬



기름지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사정이 생겨 일정이 밀린 탓에 마지막 날 현지식을 못 먹고 공항에서 우육면을 먹게 됐는데, 이 선택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난 맵지 않은 우육면을 택했는데 우리나라 갈비탕에 두툼한 면발을 넣어 먹는 것 같았고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최근에도 우육면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유독 좋은 기억이 별로 없던 중국 여행이라, 패키지여행의 한계를 알면서도 앞으로 내가 다시 갈 일이 있을까 해서, 이번 답사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고 듣고 기억나는 것도 많았으며, 음식이나 숙소도 전반적으로 훨씬 마음에 들었던 경험이었다. 지역의 차이로 베이징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중국 여행을 다시 갈 용기와 호기심이 생겼다. 조금 더 알아가지 못했음에, 힘들어도 조금 더 걷지 못했음에, 조금 더 놀지 못했음에, 아쉬움이 남는 여행이었다. 이번 답사를 진행해주신 이준갑 교수님과 동행해주신 우경섭 교수님, 그리고 열심히 학우들을 관리해준 답사탁본부 부원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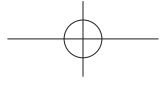
반전의 북경

류민우(신소재 15)

중국은 더럽고, 낙후되어있으며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후진국이다. 북경 답사 이전의 나에게 중국은 서두에 쓴 것 같이 낙후된 곳이었고, 중국인에 관한 생각은 부정적이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 성장이 있으니 상상과 같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발전되어 있던 것 같다. 기술적이고 도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유적지에 대한 관리도 생각보다 잘 되어있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의 3박 4일의 일정 동안 명, 청 시대의 수도였던 북경의 유적지 위주로 방문했다. 자금성, 경산공원, 장릉, 이화원, 북당, 공묘, 천단공원, 국가박물관에서 명, 청 시대의 화려한 황실의 생활을 느낄 수 있었다. 그중에 자금성, 장릉, 국가박물관이 가장 인상 깊었다.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자금성은 직접 발제를 준비해서인지 내부의 특징들이 잘 보였다. 자금성의 성벽을 지하철 노선 구축을 위해 없애버리고, 목재 건축물인 자금성의 기둥을 시멘트로 복원한 점에서 문화재에 낙후된 인식에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그 당시처럼 복원된 단청이나 남아 있는 반짝이는 유리 기와들과 옥석은 신비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금성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금지되었던 시절에 이곳에 들어왔다면 정말 많이 위축되었을 것 같았다.

둘째 날에 방문한 장릉 또한 도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왕의 묘들을 보면 도굴꾼들이 도굴을 시도한 이야기들이 많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우리나라 왕릉 등을 보면 도굴 시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명 황제들의 묘인 명 13릉은 도굴에 관한 이야기나 훼손에 대한 일이 없다는 것이 신기했다. 장릉을 보니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다. 능이 묘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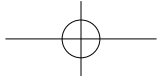


언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크고 나무로 울창했기 때문이다. 외부의 침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지는 몰라도 거대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묘라 인상 깊었다.

국가박물관의 경우 깔끔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박물관 애플리케이션, 캡션은 중국어지만 모든 전시물에 되어있는 것과 학생들의 견학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 기대보다 수준이 높은 박물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 전체 시대적 큰 흐름은 잘 연결되는 것 같고 영어 설명도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유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재현해놓은 이미지와 축소된 모형이 있어 언어를 몰라도 알 수 있게 했던 점이다. 언어와 상관없이 이해를 돕는 장치들이 많을 때 박물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국가박물관은 잘 되어 있었다. 그저 유물만 모아서 흐름 없이 전시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높았다.

유적지의 설명들이 생각보다 영어 번역이 상당히 되어있었고, 오디오 가이드도 중국어는 물론 다국어로 잘 제공되었다. 북경시민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답사 중 만난 친절한 중국인들 덕에 중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거만하고, 예의 없다는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다. 또 답사 기간 북경답지 않게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맑은 날씨가 북경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보게 한 것 같다. 맑은 날씨 속에 북경은 내가 봐 오던 북경 이미지와는 달랐고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다. 북경에 있는 동안 유적지의 설명, 친절한 중국인, 맑은 날씨는 환영받는 느낌을 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발제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유물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학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럽다. 사학과 부전공을 하는 타과 학생임에도 친절하게 대해준 사학과 학생들과 뜬금없는 질문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답해주신 교수님 덕분에 북경 답사는 그 어떤 여행보다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유강현의 중국 답사기

유강현(19)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에 도착해 점심부터 먹었는데 점심은 현지식이 처음이고 신기해서인지 맛이 있었다. 그래도 향신료 냄새가 강력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천안문 광장을 갔다. 천안문 광장에 사람이 엄청 많았다. 많았지만 중국이 더 커서 그렇게 미어터지는 느낌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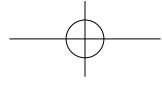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천안문 광장 뒤로 가면 자금성이 있다. 자금성 들어가기 모택동의 거대한 초상화에서 중국의 모택동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자금성에 들어가니 엄청나게 거대한 문들이 나를 반기었다. 설명을 들어보니 사신들이 중국을 왔을 때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한다. 문이 거대한 만큼 자금성 내부 역시 거대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볼 게 많아서 좋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고 외관이 거의 비슷해서 후반에는 힘들었다.

둘째 날은 만리장성을 갔다. 만리장성은 그 위상만큼 엄청나게 컸다. ‘크다=힘들다.’ 자금성처럼 거대한 만리장성을 등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둘째 날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리장성을 등반하고 이화원을 갔다. 이화원은 700m 복도가 있지 않나, 또 엄청 높은 산에 정자를 짓지 않나, 중국은 정말 땅이 넓은 게 티가 나는 것 같다. 그 후 저녁에 북경 오리를 먹었다. 북경 오리는 기대한 만큼 맛이 있었지만, 양이 적어서 아쉬웠다. 북경 오리 기대했다. 맛은 있다. 양이 적다. 북경 오리는 매우 기름지고 쫄득하여 호불호가 잘 안 갈릴 음식 같다.

셋째 날은 공묘를 갔다. 공묘는 내가 발제하는 곳이라 긴장이 됐다. 공묘는 공자의 묘이다. 공자의 묘로 공자의 위상과 맞게 엄청 넓었다. 그래도 날씨가 매우 좋고 공원 분위기가 매우 좋아 만족스러운 곳이다. 공묘 옆에는 국자감이 있다. 국자감은 한국 성균관 느낌이다. ‘우리 인하대도 이렇게 이쁜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었다. 저녁은 휘귀를 먹었다. 휘귀는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안 나서 마른 땅의 단비 같았다. 그래서 저녁을 매우 많이 먹었다.

넷째 날은 국가박물관을 갔다. 국가박물관은 딱히 별 느낌이 없었다. 한국의 박물관보다는 규모가 웅장했다. 중국의 박물관을 구경하는 경험은 신기했다. 이제 점점 출국 시간이 다가온다. 점심을 공항에서 우육면을 먹고 비행기를 타러 갔다. 비록 3박 4일이라는 짧은 여정이었지만 재밌고 추억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다.





역사의 중심 북경을 답사하며

이관우(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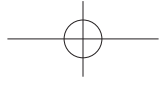
한국과는 체제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중국 여행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컸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 갔었던 나라들과 다른 중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무거운 분위기를 보고 중국 답사에 대한 두려움들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또 위안화의 인물이 마오쩌둥 한 명이라는 것을 직접 보니 중국이 독재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베이징 거리로 나오니 중국도 그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베이징의 거리와 풍경들, 그리고 거대한 건물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큰 나라임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베이징의 모습을 처음으로 접하고 처음으로 답사한 곳은 천안문 광장이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붉은 성벽과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보고,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을 보며 이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때 민주화를 외치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을 것을 생각하며 광장을 바라보니 천안문 사태는 중국에서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간 자금성은 찬란하고 막강했던 중국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높은 성벽과 끝없이 이어지는 여러 관문은 그 당시 중국 왕조의 권력을 잘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자금성에서 크고 웅장한 자금성의 모습뿐 아니라 그 속에서 중국 건축양식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금성을 지나 경산공원을 올라서 본 자금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금성을 답사하며 지나온 거대한 자금성이 하나의 풍경으로 들어왔고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자금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답사 이튿날에 보았던 만리장성은 오랜 중국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거용관에서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만리장성의 성벽들은 만리장성이 중국 역사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리장성 성벽에 올라 펼쳐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정말 많은 백성의 희생이 뒤따랐을 것을 생각해 보니 전체적인 풍경뿐 아니라 성벽의 돌 하나하나와 그 돌을 깎고 날랐을 그 당시 중국 백성들과 그들의 피와 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을 뒤로하고 갔었던 이화원에서는 중국의 건축기술과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화원의 거대한 호수와 거기에 비치는 이화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서 베이징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풍경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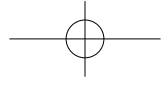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이후 답사 세 번째 날에 보았던 천단공원을 보며 중국의 정교한 건축양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 지은 천단공원의 모습은 건물 하나하나를 짓는 데도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중국 왕조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답사 마지막에 보았던 금면왕조 공연 또한 정말 재밌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금면왕조를 보려고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은 중국 공연과 예술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실제로 짜임새 있게 한 치의 틀림없이 공연하는 극단 사람들을 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답사의 마지막 날 가게 되었던 중국 국가박물관은 오랜 중국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책에서만 보던 중국의 고대 유물들부터 명, 청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국의 유물들을 보며 처음으로 중국의 역사가 부러웠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수많은 유물과 역사만으로 거대한 박물관을 다 채운 모습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 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중국의 찬란한 문화를 한 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중국 답사는 오랜 중국의 역사를 저 스스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막연히 책과 공부를 통해서만 보았던 중국 역사의 모습들을 여러 유물과 유적지들을 통해서 보니 그 당시 중국이 왜 세계 문화와 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답사는 저에게 있어 중국의 오랜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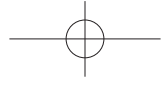
어쩌다 보니 베이징

이나윤(17)

베이징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은 내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 날이었다. 덕분에 나는 주말 내내 시험공부에 매달렸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밀린 과제들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짐을 대충 싸고 나니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방 좀 미리 싸둘걸’ 후회가 밀려오던 시점이었다. 민지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같이 공항에 가자고 부탁해서 우리는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고 김포공항으로 서둘러 출발하였다. 고요한 아침 도로를 달리다 보니 ‘아, 이제야 답사 가는 실감이 나는구나!’ 싶었다. 공항에는 조교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과 친구들이 있었다. 아는 얼굴도 모르는 얼굴들도 있었지만, 다들 왁자지껄 얘기하며 비행기를 기다리니 답사에 대한 설렘이 더욱더 커졌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지나, 우리는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입국 심사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게 진짜 ‘리얼’ 중국이구나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다.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점심을 먹으러 현지 식당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큰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선배들과 얘기를 나누며 맛있게 식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은 바로 베이징의 얼굴이라고 하는 ‘천안문 광장’이었다.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여기저기 깔린 공안들과 엄청난 CCTV 개수에 약간 무섭기도 했다. 올해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라 천안문 광장에는 거대한 규모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더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길 건너의 고궁박물관으로 곧장 향하였다. 매번 교과서에서만 보던 건축물을 이렇게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근데 정말 중국이라 다 커서 그런가, 커도 너무 커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식당에서 숙주 볶음을 더 먹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던 2시간 정도 걸어서 자금성 후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의 경산공원을 향하였다. 고궁박물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에 이곳을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올라가면서 약간 후회하기도 했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본 풍경은 정말이지 절경 그 자체였다. 저녁노을이 지면서 자금성의 황금 기와가 유난히 반짝거리는데 그 순간은 너털거리는데 내 두 다리에 대해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다.

2일 차는 만리장성이었다. 미약한 두 다리지만 중국에 와서 만리장성을 안 보고 갈 수가 없다. 마오쩌둥도 만리장성에 올라야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 역시 대장부가 되어보려고 좀 더 욕심내서 더 가파른 구간으로 향하였다. 근데 무슨 계단의 하나 높이가 40cm는 족히 넘는 것 같았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두 손으로 짚고 올라가면서 겨우겨우 돈대에 이르렀다. 다른 오빠들 역시 지쳐 보였고 우리는 중간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쉬기로 하였다. 만리장성이 크다는 건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와보니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태후의 여름별장, 이화원으로 향하였다. 곤명호 수면으로 부서지는 햇빛과 이화원의 풍경은 중국에서 보던 최고의 절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분 좋게 부는 바람과 좋은 노랫소리, 바닥에 한자를 쓰시는 정겨운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서태후가 이런 곳에서 여유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약간 부럽기도 하였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도착한 곳은 798 예술구였다. 수많은 베이징 멋쟁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 여기가 베이징의 ‘핫 플레이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유니크한 벽화와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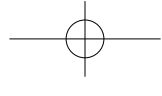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들을 보면서 없던 예술적 감각이 살아나는 듯했다. 예쁜 가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둘러볼 시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3일 차 일정은 고량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여 일정이 약간 지연되었다. 다들 속이 안 좋아 보여 마음이 쓰이기도 했지만, 답사는 계속되어야만 했다! 첫 행선지는 북당이었다. 천주교 신자인 나로서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궁금했다. 북당 안의 분위기는 정적이었고 아침 햇살로 빛을 발하는 스테인드글라스만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만주족의 옷차림, 한족의 옷차림을 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만한(滿漢)을 아우르려는 중국 천주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다음은 국자감과 공묘이다. 국자감과 공묘는 좌우로 붙어있고 고궁박물관을 기준으로 좌묘우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중 국자감은 내 발제 주제이기도 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 유적지이다. 국자감의 주요 건물과 더 많은 볼거리를 소개하였고, 추가로 우경섭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국자감과 우리나라의 성균관과의 유사한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국자감의 내부는 유리기와의 건축물과 회화나무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고 감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중국고대과거전’에서는 말로만 들었던 과거제가 어떻게 시행되었고 합격자들은 어떤 방식을 뽑혔는지, 세세한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정말로 유익했다. 그날 저녁에는 금면왕조 공연을 보기 위해 시내의 공연장으로 향하였다. 흡사 서커스단과 같았던 배우들의 가벼운 몸놀림에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특히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던 홍수 장면에서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팝콘을 다 쏟아버리기도 했다. 저녁에 먹은 회귀는 아직도 생각이 난다. 조만간 애들이랑 북가주점에 가서 회귀를 시켜 먹어야 할 것 같다.

답사의 마지막 날에는 그 전날 술에 찌들어서 늦게 일어난 사람들 덕분에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부랴부랴 중국국가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답게 그 크기는 어마어마했고 전시를 다 둘러보려면 족히 3일 이상은 걸릴 것 같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갑골문이었다. 정말 거북이 배딱지에 갑골문이 적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을 실로 만나 볼 수 있게 되어 놀라웠다. 그리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홍탕 우육면을 후루룩 먹고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답사 때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니 그때의 기억이 다시 몽글몽글 떠오르는 느낌이다. 비슷한 점심 식사로 물리기도, 익숙하지 않은 화장실로 약간 고충을 겪기도 했지만, 중국의 오랜 역사를 몸으로 느끼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면서 답사가 아닌 기분 좋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답사 기간 바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꿈을 꾸 듯한 느낌이다. 다음에도 해외 답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아마 내가 졸업한 이후라서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만약 그때까지도 졸업을 안 하고 있다면, 엄청난 고학번일 테지만 과감하게 해외 답사를 신청할 것이다.



나의 베이징 답사기

이다정(18)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추계 해외학술답사가 시작되었다. 해외 답사는 5년에 한 번 정도 열린다고 하니, 이번 답사를 놓치면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참여하였다. 출발 전날 잠을 많이 못 자서 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까 걱정되었는데 그저 기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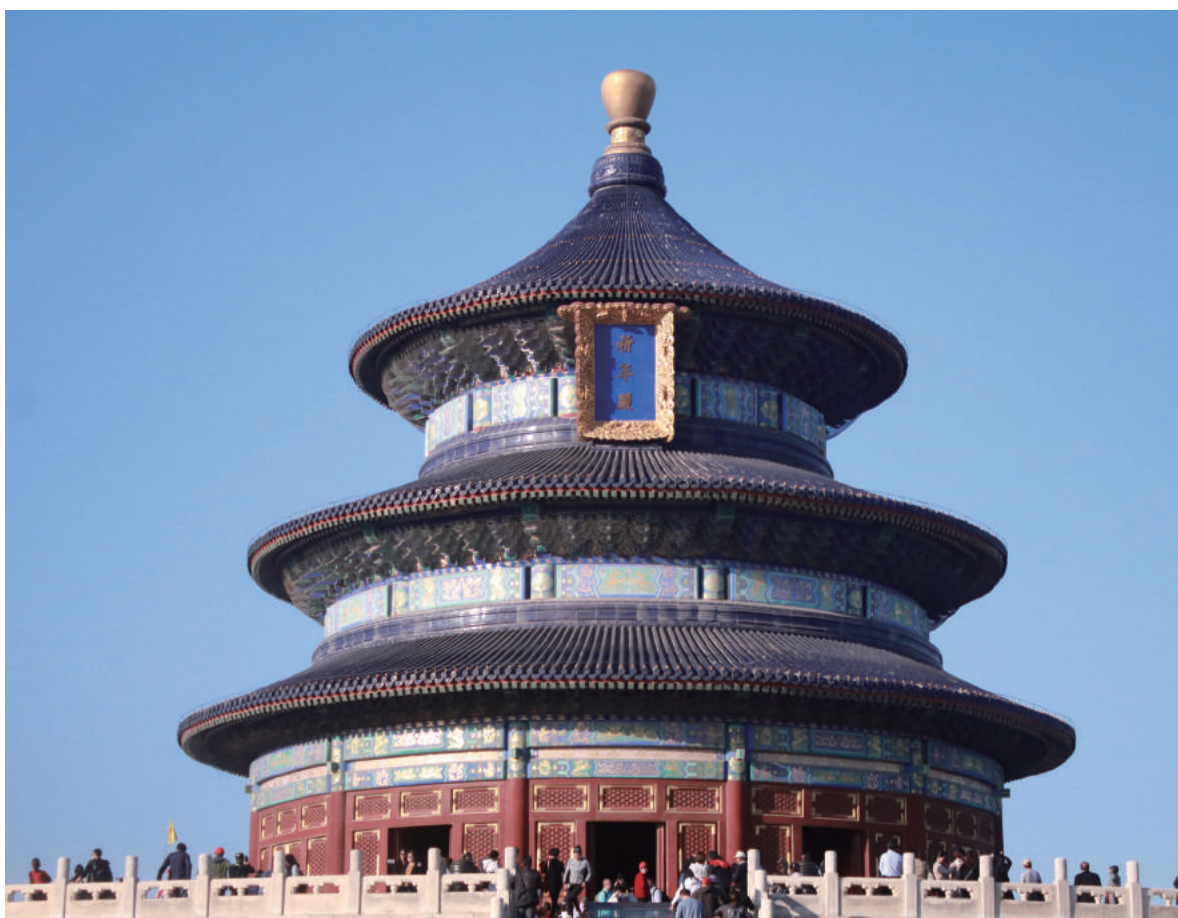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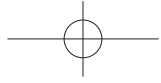
베이징에서 지내는 동안 공기가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사이에 적응한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떠올린 이미지는 숨 쉴 때마다 폐에 담뱃재가 쌓이는 그림이었다. 대기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답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우리는 시내 곳곳을 곧잘 돌아다녔다. 베이징에서의 나홀은 환상적이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1일 차에는 베이징의 중심인 천안문 광장에서부터 자금성, 경산공원, 왕푸징 거리를 답사하였다. 천안문 광장의 규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는데 자금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창경궁 답사도 하루 만에 못 끝냈는데 자금성의 모든 장소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자금성 뒤의 경산 역시 인공산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미래 관광객의 시선에는 아름다운 장소일 뿐이겠지만 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지를 상상하면 마냥 꿈의 공간으로만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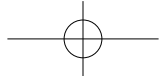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2일 차에는 명 13릉과 만리장성, 이화원, 798 예술구를 답사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답사지는 만리장성으로, 답사가 끝난 지 3주가 지난 지금도 만리장성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감격이 생생하다. 요즘은 에스컬레이터나 케이블카가 있어 정상을 밟는 데에는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내 발로 직접 걸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고, 나름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올라가는 길도 힘들었는데 내려갈 때는 지쳤기 때문인지 더 힘들게 느껴졌다. 계단의 높이도 고르지 않았고 그 경사 역시 가팔랐기 때문에 실수로 발을 잘못 내디뎠더라면 그대로 고꾸라졌을 것이다. 만드는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것이지만 성을 이용하는 병사들 역시 많이 죽었을 것 같았다.

3일 차에는 북당-공자묘-전문대가-천단공원 순서대로 답사한 후 금면왕조 공연을 봤다. 북당은 서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인데 들어가는 입구와 성당 건물 양옆의 정자는 중국식으로 지어져 있었다. 또 성당 앞에는 사자상이 있었는데, 서양식 건물 양식과 동양식 건물 양식이 합쳐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4일 차에는 국가박물관에 갔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유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명, 청 시대의 유물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동시원의 <개국대전>을 못 봤다는 점이다. <개국대전>은 국가박물관 입구에 걸려있다고 알고 있어, 입장하기 전부터 고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림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에 방문할 때는 꼭 그림을 찾고 싶다.

많은 답사지를 방문했지만,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을 경험은 한밤의 베이징 산책일 것이다. 중국에 왔는데 관광버스로만 이동하는 게 아쉬워서, 직접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도 이용해 보았다. 이날 만났던 버스 기사님,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 KFC 직원,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던 아저씨 모두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셨다. 여러모로 정 많고 뜻깊었던 답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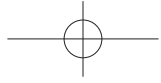




첫 해외 답사이자 마지막 답사, 북경 이은기(15)

나에게 중국이란 나라가 처음은 아니었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으로 포함해서 다섯 번째 방문이며, 북경만 따지자면 두 번째 방문이었다. 더군다나 북경은 1년 만에 재방문이니 그리 새로울 게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과연 그곳에 가서 잘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15학번이 최고학번이라는 사실에 심란함을 느끼는 한편, 가서 다른 후배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괜한 걱정이었다는 건 첫날부터 드러났다. 중국의 유적과 풍경에 폭 빠져 그런 걱정을 할 틈이 없었고, 막상 가서 후배들과 어울리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새로운 친구도 늘어났으니 오히려 걱정보다는 선물처럼 받은 게 더 많았다. 그리고 3박 4일간의 북경 답사는 다시 가는 곳은 다시 간 곳대로, 처음 가는 곳은 처음 간 곳대로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었다. 가이드님의 친절 한 설명과 교수님의 부가설명으로 그냥 봤다면 지나쳤을 곳들이 더 풍성하게 다가왔다.

중국에서 방문했던 모든 유적이 인상 깊고 좋았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이화원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화원은 1년 전에도 방문했었지만, 당시에는 장량의 초입까지만 서둘러 보고 돌아와서 상당히 아쉬움이 깊게 남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량의 끝까지 가서 멀리서 보기만 했던 불향각도 올라가고, 곤명호의 유람선도 타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음에 기뻐했다. 이외에도 중국국가박물관, 장릉 등 기억에 남는 곳은 셀 수도 없다. 중간중간 주어진 자유시간에는 중국에서만 특별히 맛볼 수 있는 체험, 예를 들면 전통 차 시음이나 수자뽕 먹기,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셨던 베이징에 유명한 요구르트 먹어보기 같은 것들 말이다. 이것들을 친구, 후배와 함께 즐기면서 알찬 3박 4일을 보낼 수 있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 중국에서의 경험은 값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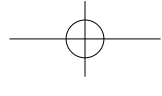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이렇게 낮에는 동기들, 후배들과 함께 중국 곳곳을 둘러보고 밤에는 숙소 밖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답사에만 즐길 수 있는 술도 먹고 낮과 밤이 다른 생활을 해보는 것도 중국에서의 또 다른 재미 중 하나였다.

답사탁본부의 일원으로서만 항상 답사를 다녀왔다. 그래서 이전의 답사에서는 답사를 꾸리고 학우들을 이끄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장이나 총무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부담도 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답사탁본부의 일원으로서 학우들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답사에 참여했다. 그때와는 다르게 또 답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다녀오고 난 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부여된 영상 제작 과제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니 뿌듯하고, 다른 학생들의 영상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중 하나였다.

4학년 2학기, 운 좋게도 정규학기를 마치게 되는 시점에서 해외 답사가 열리게 되어 쉽게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직 남아있는 수업이 있어 졸업은 이번 학기에 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마지막 학기를 뜻깊은 경험으로 남길 수 있게 해주신 이번 답사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글을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3박 4일간 26명을 무탈하게 이끌어주신 가이드님에게 한국에서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다. 부족한 지식을 끊임없이 채워주신 이준갑 교수님, 우경섭 교수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P.S 15학번 동기들, 다들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길 바란다. 이하 후배들도 재밌었다! 잘 지내라!





모든 것이 컸던 나의 첫 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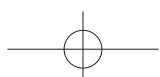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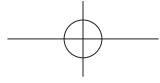
장서영(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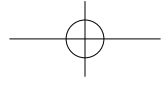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북경의 자금성과 특히 만리장성은 살면서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한창 세계 여러 나라를 배우며 중국 대표 관광지로 자주 접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커가면서 역사를 좋아하게 되었고 사학과까지 오게 되며 북경은 역사적으로 꼭 가봐야 할 곳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답사 장소가 북경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참가를 결심했고, 또 4년 혹은 5년마다 돌아오는 해외 답사의 기회를 1학년 때 얻은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19학번이 몇 명 없어서 3박 4일간 조금 심심할 것도 예상했지만, 망설임 없이 답사에 나섰다.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내가 중국 답사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은 자금성과 만리장성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자금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고, 만리장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중국은 역시 대국(大國)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들이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럼 자금성은 얼마나 크길래 그러는지 확인해보자는 심보로 방문했는데, 이해가 될 정도로 컸다. 우리가 두세 시간 걸으면서 본 것도 겨우 일부였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 명 황제의 능도 그랬다. 당연히 한국의 조선왕릉을 생각하며 봉분을 기대했으나 산 전체가 능이라는 것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내 생각의 범위가 이렇게도 좁은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어디를 가고, 어떤 것을 보던 크기 적으로, 양적으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답사 소감문에 ‘크다’ 밖에 적을 게 없는 점은 나도 싫지만, 가장 기억에 남아서 어쩔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답사지들 말고도 방문한 모든 장소가 좋았다. 답사 수업 수강생이 아니라 답사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간만쯤 교수님과 가이드님의 설명, 발제를 귀담아들으려고 노력했다. 피곤하고 사진 찍기 바빠 실천하지 못한 적도 많지만 그래도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이화원과 공묘의 이야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최대한 교수님에게 듣고자 귀찮게 따라다녔는데, 그만큼 열심히 설명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다. 이외에도 혼자 있을 때 말 걸어주고 챙겨줬던 선배들도 모두 감사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 외롭지 않은 답사였던 것 같다. 원래 혼자 여행을 좋아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보니 내심 걱정했었나 보다.

편한 마음으로 떠난 답사여서 그런지 온전하게 답사에 집중하고 배운 것도 많았다. 주는 대로 먹고, 이동하며 편하게 여행했던 이유도 크다. 단순히 답사를 넘어 평소 바쁘게 살며 지쳤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도 느껴졌다. 또 내가 평소 중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도 깨달아 공부하고 싶어졌고, 중국어도 배우고 싶어졌다.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얘기하며 배운 것들이 참 많다. 또 사학과에 입학해 두 번의 답사에 모두 참여했다는 나만의 뿌듯함도 얻었다. 답사비로 쓰인 알바비를 다시 채워야 하기는 하지만 답사, 여행, 힐링을 모두 느끼고 온 행복했던 시간이었기에 후회는 없다.





답사되감기

전지혜(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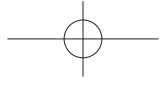
저희는 6년 만의 중국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날은 입국 심사로 인해 생각보다 일정이 많이 밀렸지만, 가이드님이 융통성 있게 중국의 교통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일정을 조절해주신 덕분에 본래의 일정보다 조금은 다르게, 하지만 빠뜨린 곳 없게 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의 일정은 중국국가박물관, 천안문광장, 왕부정대가를 가는 것이었지만, 조금 바꾸어 천안문광장을 보고, 자금성과 경산공원을 둘러본 다음에, 왕부정대가를 걸 훑기 식으로 둘러보고는 저녁을 먹으러 가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천안문광장은 매우 크고, 광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다 메워질 때도 있었다 하니 허를 내둘렀을 인파였을 것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금성과 경산공원을 둘러볼 때 솔직히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금성은 매우 넓었고, 흙으로 되었다면 조금 덜했겠지만, 돌로 된 바닥들이 아직 기억에 남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산공원을 올라가 바라본 자금성은 힘듦을 잊게 해 줄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1일 차의 마지막으로 왕부정대가를 둘러볼 때 서점이 있다고 하셔서 서점을 구경하러 가고 싶었으나 중국의 길거리 음식에 빠져서 둘러보지 못한 것이 살짝 후회됩니다. 다음에 다시 북경에 가게 되면 꼭 가리라 소감문으로나마 다짐해봅니다.

2일 차의 일정은 본래 만리장성과 장릉, 그리고 이화원과 789 예술구를 탐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에 앞의 순서만 바꾸어 장릉을 먼저 보고, 만리장성을 본 다음 이화원과 789 예술구의 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장릉은 한국에서 보던 왕릉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만리장성은 올라가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 잠깐 주저앉기도 했지만, 그 경치는 너무나도 좋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만리장성에서만 길게 관광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원은 천단공원 다음으로 제일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도 올라가는 경사가 비탈졌지만, 위에서는 그만한 경치를 느낄 수 있음에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곳에서의 경치 때문에 그 유적지에 대한 인상 그리고 생각이 좋게만 떠올려집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간 789 예술구는 한국의 명동과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아기자기한 소품들부터 갤러리까지 다양성과 개성이 뛰어난 가게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해서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밤에 가서 그런지 낮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와 보고 싶습니다.

3일 차는 자금성과 경산공원, 그리고 북당, 공묘와 국자감, 난뤄귀샹을 관광하고 금면왕조를 보는 일정이었습니다. 금면왕조의 공연 일정이 고정되어있던 탓에 촉박하였고, 국가박물관을 갈 수 없게 되어 4일 차의 천단공원을 3일 차에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즉 북당, 국자감과 공묘, 천단공원을 보고 금면왕조를 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당은 정말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이는 이질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자감과 공묘에서는 작게 전시되어있던 박물관들이 좋았습니다. 그 주변의 나무들도 너무나 잘 배치되어있어 마음의 안식을 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천단공원은 제가 발제해서 그런지 기대가 컸던 유적지였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까 걱정도 했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천단공원은 아름답고 뜻깊은 공원이었습니다. ‘북경하면 천단공원’이라는 말도 있듯이, 발제하며 내심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면왕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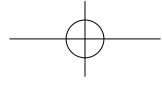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공연은 정말 좋았습니다. 가락 하나하나, 춤과 소품들까지 정교하기 그지없었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드는 공연입니다. 특히 한국어 자막이 있어 더 이해하고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일 차에는 1일 차, 그리고 3일 차 모두 관람에 실패했던 국가박물관을 보았습니다. 청동기시대 유물이 유명하다고 하여 보았는데 책에서만 보던 상나라의 청동 술이 있어 깜짝 놀랐고, 철 화폐도 자료로서 많이 보던 것이라 내심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안전하고 무탈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밤에는 자유시간을 주셔서 야시장과 거리를 탐방할 수 있었고, 야시장에서 건두부와 곱창 등을 넣은 국수를 먹어보았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거리에 나가 먹은 탕후루도 정말 아직 군침이 고이는 듯합니다. 그런 자유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정은 체감상 시간이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가이드님께서 융통성 있게 조절해 주셔서 그만한 관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현지 음식도 한국인이 가도 전혀 과감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있었고, 휘귀는 ‘대박’이었습니다. 현지식은 현지에서 먹는 것이 옳다고 다시금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님께서 정말 잘 안내해주셔서 감사했고, 이번 답사 자료집을 준비하며 도와주신 사학과 모든 학우분께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잘 이끌어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해준 뜻깊은 답사였습니다.





북경을 답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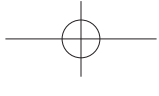
정우혁(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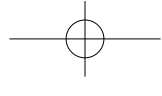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2학기 답사로 북경을 간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말로만 듣던 북경의 모습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무척이나 기대되었다. 작년에 청도를 다녀온 적이 있긴 하지만 북경은 수도여서 볼거리가 더 많을 것 같았다. 모든 답사 수업이 그렇듯,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설명과 학우들의 발표를 들으며 여러 유적지를 미리 배우고 난 뒤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보람차고 유익한 답사가 되었다. 평소에 패키지여행은 틀에 박히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 답사로 인식이 좀 바뀌었다. 가이드분은 모든 유적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현지인들만 알법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답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발제와 교수님들의 설명은 ‘답사를 이래서 가는구나’ 하는 내 생각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아직 답사를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 북경에 방문해서 놀란 점은 유적지들이 모두 크다는 점이다. 천안문 광장은 엄청나게 광활했다. 관광객으로 사람이 붐볐지만 그래도 광장은 여전히 광활했다. 광장을 지나 마주하게 된 자금성도 그 규모가 엄청났다. 포로들이 자금성 오문 앞에 서면 그 높이에 압도된다고 배운 뒤에 마주하니 나 또한 절로 압도되는 것만 같았다. 자금성의 규모와 퍼낸 흙으로 만든 경산공원의 규모를 눈으로 직접 보니 당시 동원되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과 많은 그만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황제의 권력은 얼마나 강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자감과 공묘, 이화원, 장릉, 천단공원 모두 중국답게 규모가 컸다. 3박 4일 동안 답사를 다니면서 ‘중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붉은색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답사 중간중간 현대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어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박하게 조성된 798 예술구에서는 젊은 예술인들이 가졌던 반항 의식을, 왕부정거리에서는 활발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금면왕조 공연도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웅장한 무대와 엔딩 크레딧의 많은 이름은 나를 놀라게 하는 데 충분했다.

언제나 새로운 곳을 방문해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건 설레는 일이다. 이번 중국 답사를 통해 선배, 동기, 후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보고, 먹고 경험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무척이나 즐거웠다. 이번이 네 번째 답사인데, 다녀온 답사들 모두 즐거웠지만, 한동안은 이번 답사가 가장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서 남아있을 것이다. 이번 답사가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답사탁본부장으로서 답사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에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학과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면서 해외 답사라는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을 텐데 이번에 해외 답사를 다녀오고 멋진 추억을 얻은 것 같아서 무척이나 기쁘다.

마지막으로 좋은 답사가 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학과 파이팅입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이 재밌는 답사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중심, 북경을 다녀와서

지수빈(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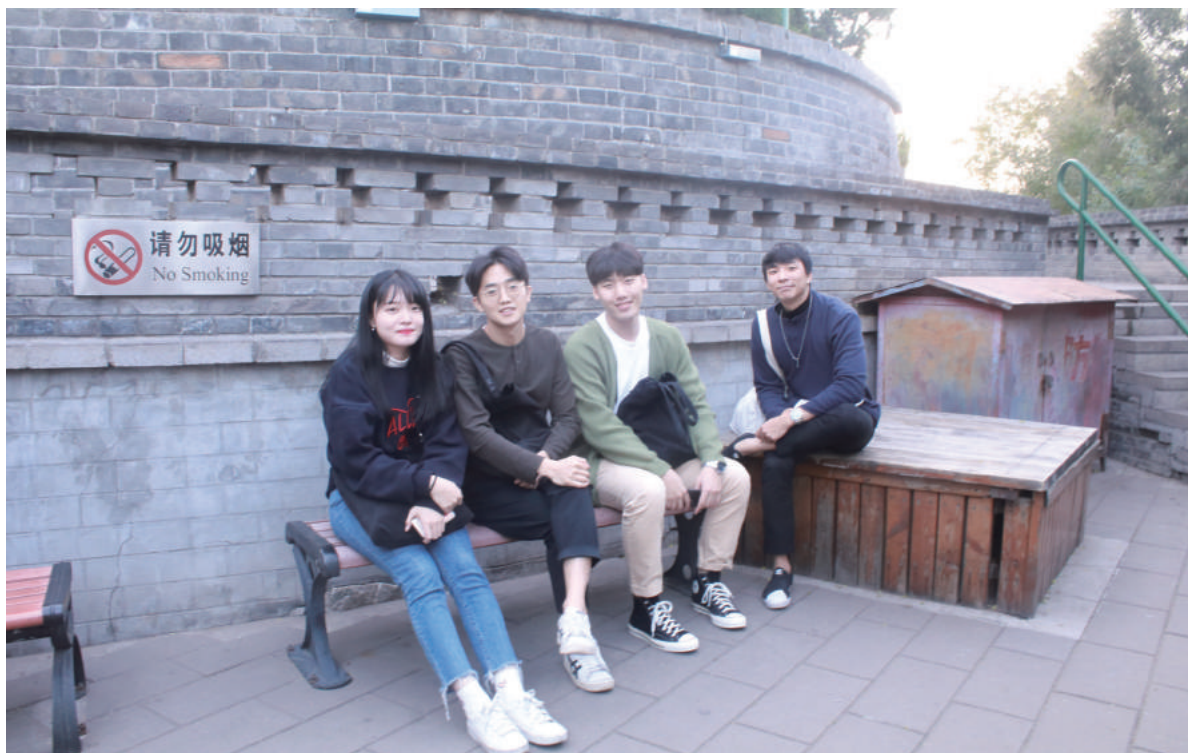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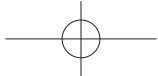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사학과에 입학하고 첫 해외 답사이자 마지막 답사를 중국 베이징으로 다녀왔습니다. 인생에서 첫 중국 여행이기도 했고, 첫 해외 답사였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발제를 준비하며 글로벌 역사콘텐츠탐구 수업을 수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었던 답사에서 많은 추억을 남기고 왔습니다. 사학과 학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다 함께 공항에서 만나 비행기를 타고 가이드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닌 답사는 색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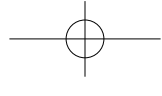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었던 북경 역사의 산문들을 직접 볼 수 있음에 신기하기도 했고 더욱 더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답사지는 자금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금성에 붙어있는 거대한 모택동 사진과 만리장성이었기에 더욱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가을 날씨와 더불어 미세먼지도 그리 심하지 않아 답사하기 편했습니다. 자금성을 둘러본 후 경산공원에 올라가서 바라본 자금성의 전경이 굉장히 멋있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왕푸징 거리를 걸어 다니며 중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만리장성이 일정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할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갔었는데 딱 도착하였을 때 단풍과 어우러진 장엄한 만리장성의 모습은 정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만리장성 거용관을 향해 오르며 높은 경사와 계단들로 힘들었지만, 직접 만리장성을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화원을 답사하였습니다. 호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호수를 당시에 어떻게 조성했을까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었던 북경 오리와 모든 일정이 끝나고 먹었던 양꼬치와 중국의 고량주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조선 천주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북경 북당을 처음으로 답사하였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기에 이곳을 답사할 수 있음에 기뻐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왔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볼 수 있었던 북경 공묘와 국자감, 그리고 천단공원을 답사하였고 마지막 일정으로 금면왕조 연극을 관람하였습니다. 답사하기 전,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던 일정 중 하나가 금면왕조 연극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무대와 기획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연극을 본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실제로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는 홍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정상 못 갔던 국가박물관을 관람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답사는 저에게는 벌써 여섯 번째 답사이자 마지막 답사였기에 더욱 뜻깊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중국 답사는 학우들의 발제와 교수님, 가이드님의 강의를 들으며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사학과 학우들과 즐겁게 추억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답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교수님들과 답사탁본부 학우분들, 그리고 다 함께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많은 학우가 해외 답사에 참여하였으면 좋겠고, 사학과 꽃이라 할 수 있는 답사가 언제나 무탈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과 파이팅!





베이징에서 생긴 일

하재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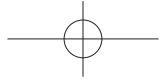
베이징은 나에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진 공간이었다. 내가 중국을 좋아하게 된 것에는 특정한 시점(始點)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이라는 국가를 좋아한 시점은 중국사에 관한 관심이 생기면서부터였다. 중학교 때 처음 삼국지를 읽었는데, 그때의 영웅들이 뇌리에 깊게 박혀서 중국사를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후로는 중국과 관련된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싫어서 피하던 한문도, 처음 접하는 중국어도, 동아시아사도 물론 나에게서는 호감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중국사 소모임인 ‘한어반’에 들어가, 중국사 수업을 들었다. 그러는 동안 중국에 대한 호감은 더 커졌고, 특히 베이징에 대한 이미지는 여행이나 답사의 대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던 도시 중 하나였다.

반면 내가 중국을 좋아하게 된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은 ‘호(好)’보다는 ‘불호(不好)’에 가까웠다. 막연한 인식이었지만 중국은 불결하다거나 중국인은 불친절하다거나 하는 이미지가 잠재해 있었다. 그래서 베이징은 나에게 호불호(好不好)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도시였다. 마음으로는 베이징으로 답사나 여행을 가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척박한 인심과 환경이 두려웠던 것 같다. 그러던 중, 더욱 안정적인 방법으로 베이징을 답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번의 2019년도 추계 북경답사였다.

베이징에서 3박 4일을 지내고 돌아왔는데, 베이징에서 볼 것이 그렇게나 많은 줄은 처음 알았다. 먼저 첫째 날 천안문광장을 거쳐 자금성, 그 뒤의 경산공원까지 쭉 이어서 도보로 답사했다. 답사가 왜 답(踏)사인지 알 수 있던 기회였다. 역시 답사는 발로 뛰는 것이었다.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은 경복궁 정도의 길이였는데, 역시 대국은 작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 기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천안문광장만 하더라도 매우 넓어서, 과장을 보태자면 지평선이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뿐했다. 그만큼이나 자금성도 매우 넓었다. 중앙의 건물들만 거쳐서 이동했는데도 한참 걸렸던 것 같다. 그래도 경산공원 위에 올라서 자금성 전체의 모습을 보았을 땐, 궁궐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궁궐에서만 살아야 하는데, 자금성이라서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만큼 넓은 공간이었다. 그 후에 왕푸징의 거리에서의 자유시간이 앞에서의 일정을 위로했다. 신화서점을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서점을 찾지는 못하고 헤매다가 중국의 길거리 음식문화를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만리장성 거용관에 도착했다. 거용관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옆의 산봉우리에 있는 거점까지 올라갔는데, 경사가 매우 가팔랐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도, 이곳에서 지키면 한사람이 막아도 10,000명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왜 있는지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그 관을 쌓은 사람들의 역(役)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명 13릉 중에 영락제의 무덤인 장릉을 답사했다. 장릉은 저승의 공간이고, 장릉에서 나오면서 “我回來了”라고 외치며 이승으로 돌아왔음을 알리고 나니 액땀을 한 것처럼 몸이 가벼웠다. 그리고 이화원으로 이동했는데, 이화원과 곤명호도 정말 넓었다. 특히 이화원의 상징인 불향각이 예상보다 굉장히 높았다.

이화원은 답사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준비를 맡았던 곳이었다. 한국에서 서적들을 보면서 알게 된 곤명호와 이화원은 별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일성별장이나 혹은 안압지 정도를 생각했다. 그런데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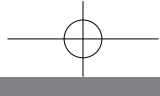


답사의 묘미는 책과 다른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곤명호와 이화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한 것보다 정말 넓었다. 하루를 다 들여서도 ‘그것들을 다 눈과 기억에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소였다.

베이징에서의 답사는 중국에 대한 또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줬다. 베이징에 있는 유적 대부분은 하나 하나 이름마다 하루를 부여해서 보아도 모자랄 정도로 넓고,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국가박물관, 이화원, 자금성, 공묘의 박물관 등등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나에게는 환경적인 요인을 제하고도 중국을 다시 답사할 의지를 심어주었다.

베이징에서 가장 흥미, 재미로 와닿은 것은 내가 배운 중국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지인과 숨을 같이하고, 의사소통한 기억은 신기해서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살았던 옛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역사가가 되고 싶은 학생으로서는 큰 기쁨이자 설렘이었다.





해외통신사

In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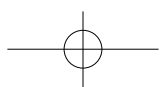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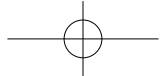
글 진연 (17)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후기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앙민족대학교에서 두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낸 사학과 17학번 진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써보는데 학과 소식지에 실리게 되는 글이라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중국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 사학과 학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교환학생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중국어 실력 향상”이었기 때문에 베이징에 있는 대학교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다르겠지만,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인하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베이징의 대학교 수가 그렇게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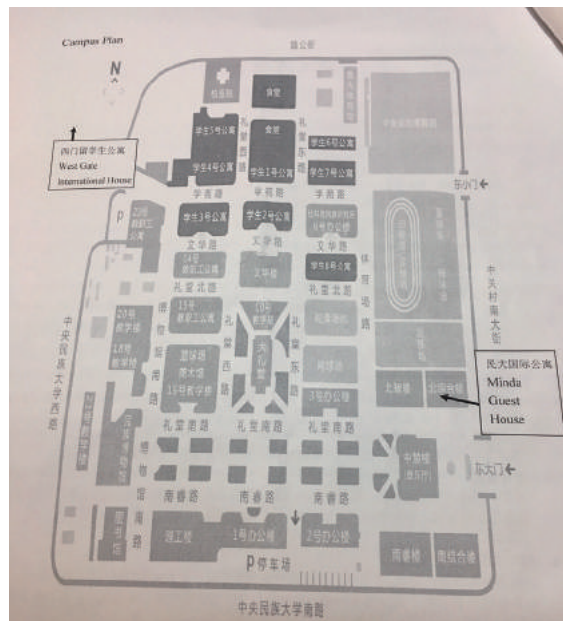




지 않았고, 한 학교당 2, 3명 정도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청 당시, 중국까지 갔는데 푸통화가 아닌 방언을 배우게 될까 걱정되어 베이징을 고집했지만, 베이징은 기숙사비도 비싸고(한 달에 40만 원 정도), 요즘은 대부분 지역에서도 수업 시간에는 푸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녔던 중앙민족대학교는 한국인이 많지 않아 중국어를 배우기에 적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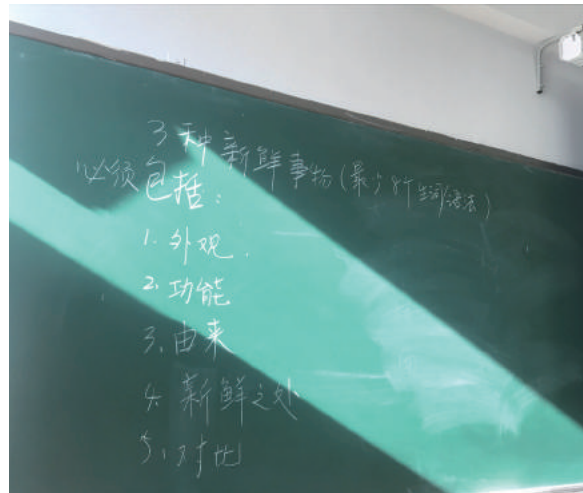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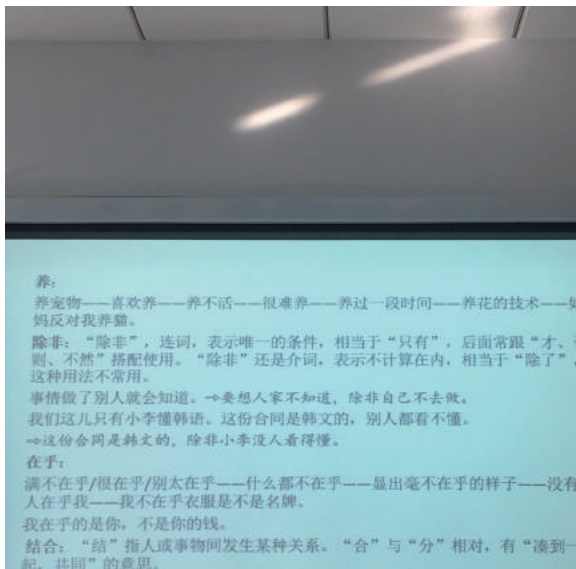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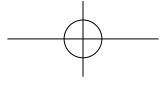
중앙민족대학교 정문



중앙민족대학교 내부 지도

인하대학교 중국 교환학생은 HSK 성적과 면접은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교내 어학 시험으로 결정됩니다. 저도 이 당시에는 HSK 성적이 없었지만 운 좋게도 교내 어학 시험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와 1지망으로 적어낸 학교로 올 수 있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HSK 4급에서 5급 중간 수준 정도 됩니다. 사실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도 중국 대학교는 정원이 많아 교환학생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중국에서 생활해 본 결과 중국은 영어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고 어느 정도 중국어 수준이 되어야 현지 학생들과 맘 편히 교류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오면 중국 유학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기에는 중급 수준(HSK 4, 5급 정도 난이도)인 어학당 6반에서 수업을 들었고 두 번째 학기에는 고급 수준(HSK 6급 정도 난이도)인 어학당 8반과 교내 사학과 본과수업을 병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상의 문제로 본과수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본과수업 청강은 두 번 정도 나갔는데 전부 중국어로 수업이 이루어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중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배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어 실력이 충분히 쌓이면 교내 본과수업을 1, 2개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완강을 할 자신이 없다면 관심 있는 수업을 청강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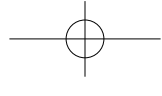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어학당 선생님들이 교과서와 ppt 자료를 이용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저는 중국에 온 가장 큰 목적이 중국어 실력 향상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주로 중국인이나 다른 어학당 친구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운 좋게 기숙사 룸메이트도 한국인이 아니었고 어학당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침대에 누울 때까지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덕분에 말하기 능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유학하게 되는 학우에게도 최대한 한국인과의 친목 쌓는 것을 피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봤자 1년 정도의 어학연수인데 한국인들과 계속 물려다니다 보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힘들게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도 중국 대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대학 수업을 들어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중국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본인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자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했던 축구대회, 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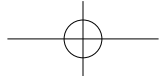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 언어 습득 방면에도 도움이 되지만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다른 국가에서 온 친구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비난을 하거나 이후에 피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란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인들은 대체 ~인 것 같아”라고 돌려서 말해주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이 사고방식과 문화가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제가 있던 중앙민족대학교는 중동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한국,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90% 정도에 달해서 같은 문화권끼리 주로 어울려 다니게 되어(한국인들은 보통 일본인 친구들과 가장 친하게 지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그때에는 영어권 국가로 유학하러 가서 다른 문화를 접해보고 싶습니다. 중국에 오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이나 단기유학이 돈 낭비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전의 저는 절대 얻지 못했을 것을 배우고 가서 이다음을 또 꿈꾸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4년을 연속으로 대학교에 다녔더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특히 책과 논문 속에서는 얻을 수 없던 지식과 경험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학과 학우들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한 번쯤은 해외에 나가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기에 함께 했던 6반 친구들과 두 번째 학기에 함께 공부한 8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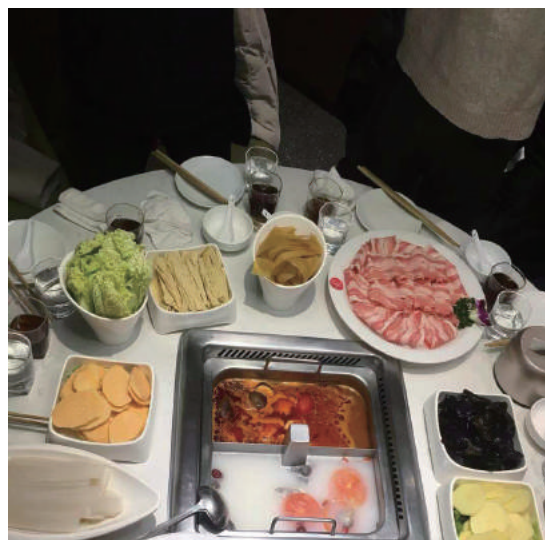
일 년 동안 같이 지낸 일본인 룸메이트 하나와 다른 일본인, 태국인 친구들



처음 베이징에 왔을 때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중국 음식에 적응을 못 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첫 일 주일은 비교적 간이 약한 중국 음식인 “토마토 계란밥”을 학교 식당에서 포장해와 김치랑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입맛에 맞는 중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고(중국은 의외로 채소볶음 요리가 맛있습니다.) 귀국할 때쯤에는 중국 음식만 찾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에는 한국 음식점이 많아서 3, 4 일에 한 번 정도는 한국 요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한국 돈 7천 원 ~ 8천 원 이내), 평소에는 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학교 식당에서는 2 ~ 3가지 반찬과 쌀밥을 시켜도 삼천 원을 넘지 않습니다. 나중엔 학교 밥이 질려서 매일 나가서 먹었는데 먹는 데에 있어서 크게 민감하지 않다면 학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며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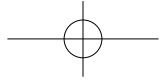


어떻게 골라도 15위안이 안 넘는 학교 식당과 동문 앞 프랜차이즈 음식점 이선생



베이징에서 꼭 먹어야 할 베이징 덕과 충칭식 회귀

저는 원래 여행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 베이징 내의 명승고적(자금성, 이화원, 만리장성 등)과 비교적 가까운 도시들(톈진, 칭다오) 위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나마 제일 멀리 갔던 도시가 상하이였는데 일찍이 개항된 도시라 높은 건물들이 많았고 해외의 대도시들과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종업식 후에 시안에 들렀다가 인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시간 문제상 그렇게 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국과 같이 큰 나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할 수 있는 한 많은 도시를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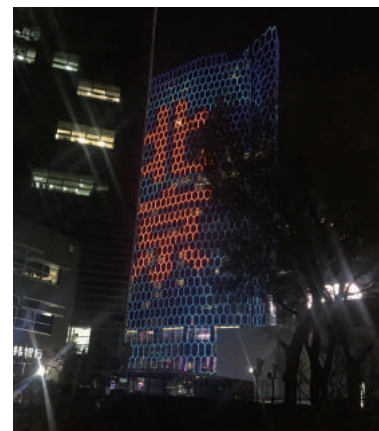


베이징 - 자금성과 만리장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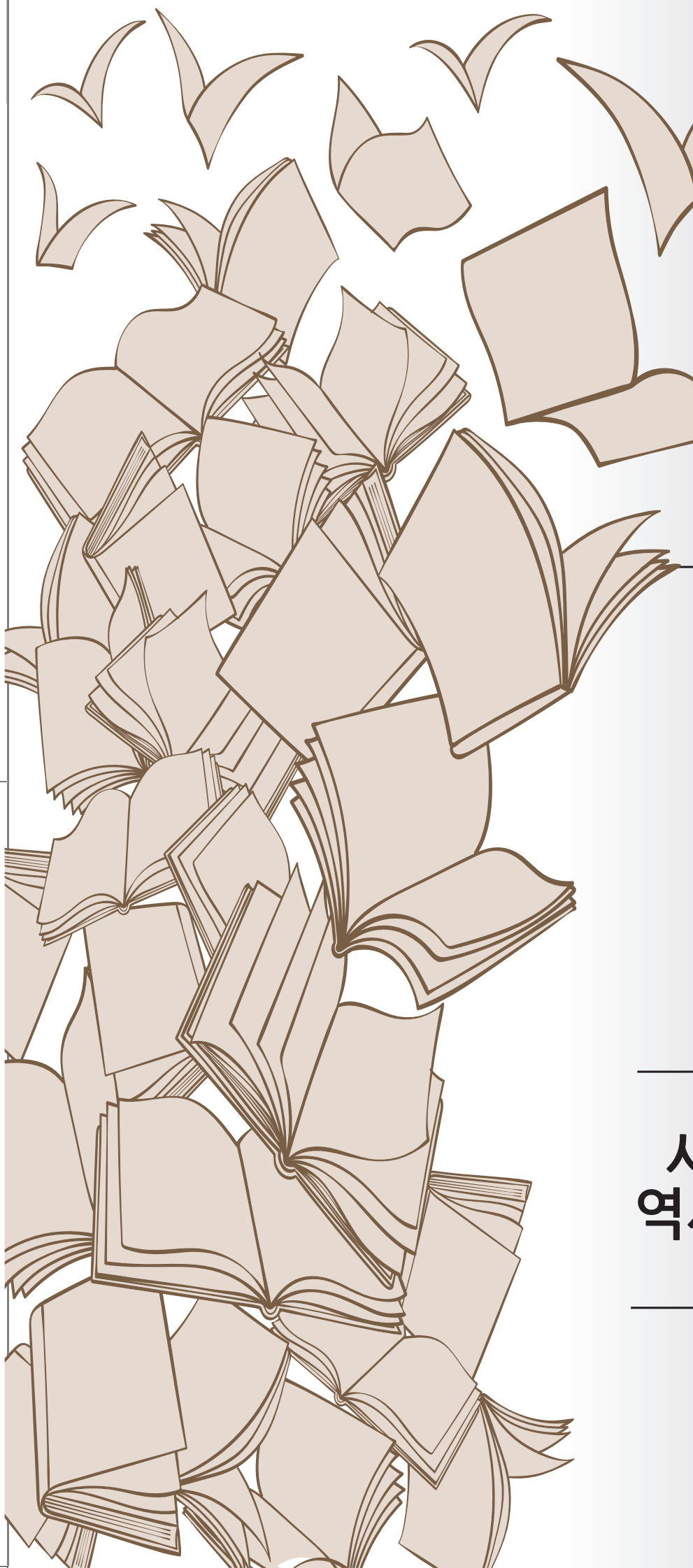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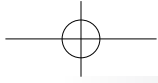


학기 중에 짧게 씩 다녀온 칭다오, 텐진, 상하이

중앙민족대학교에서의 1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알차고 의미 있었습니다. 중국에 온 목적을 달성했고(HSK 6급 따기),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좁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더 어렵고 큰 꿈을 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학우들도 나이 때문에, 시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국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학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



베이징 이원 극장에서 본 경극, 베이징 유명 놀 거리 썬리툰



역사학
논문 작성 소감문

사실의 바다에서 역사를 건져올리다

WRITING
HISTORY



외국사의 설움을 딛고

이예슬 (15)

처음 논문 수업이 시작되고 각자의 주제를 발표할 때, 나는 가장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과 명칭을 다시 확인했다. 역사학 논문 작성법을 수강하는 18명의 수강생 중 2명을 제외하고 전부 한국사를 쓴다고 하니, 우리 과가 사학과인지 '국'사학과인지 다시 확인해보아야 했다. 다행히 과의 정식 명칭이 사학과이기에 나는 외국사를 쓰기로 했다. 누가 눈치를 주지 않아도 수강생 전부가 모르는, 심지어 지도교수님도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쓴다는 것이 참 눈치가 보였다.

이번 글은 앞으로 외국사를 쓰려는 다른 학우분들을 위해 쓴다.

논문 수업을 진행하며 지도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모든 글을 읽기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18명이 전부 15장 이상의 글을 쓴다면 전부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더욱이 외국사의 경우, 특히나 교수님께서 모르시는 주제의 경우엔 본문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도우려 해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저 난감할 뿐이다. 그래서 4개월에 걸친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서로서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지도교수님의 질문이 의아했다. 또한, 지도교수님은 4개월 내내 나의 논문을 이해하지 못하셨기에 서로 의아한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수업이 전부 끝나고 느낀 점은 굳이 서로 이해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힘쓸 필요 없다는 것이다.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지난 4년간의 학업 결과물으로써 전문성을 띤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전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대단히 상식적인 내용을 전문적인 글에 실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나는 글을 쓰며 임의의 독자를 설정했다. 그 독자는 내가 쓰려는 지역에 대한 정보나 역사에 문외한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비전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글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4개월 동안 논문 수업에 임하면서 어디까지를 상식선으로 정하고 어디까지를 설명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수업을 듣는 모든 학우와 교수님이 모르는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컸다. 마침내 나는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내 나름의 타협 선을 찾은 것이다.

외국사를 하는 나의 역경은 논문 답사에서 계속되었다. 이번 학기 논문 지도교수님은 답사를 아예 고려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의 주제는 현지답사가 필요하다 느꼈다. 그렇기에 수업 외적인 시간에 직접 답사를 기획해 다녀오게 되었다. 다행히 교수님의 허가 없이도 학과의 지원을 받아 답사를 다녀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그것을 활용해 20만 원을 지원받아 다녀왔다.



이번 논문 답사는 나의 주제를 더 단단히 다지고 베트남에 대한 나의 애정을 확인할 기회가 되었다. 사이공에서 만난 크메르 사원은 남부 베트남 크메르의 복진을 증명한다. 사원 앞에선 순간부터 나는 그들이 내뿜는 황금빛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방문한 날은 크메르 커뮤니티의 행사가 있던 날이었다. 크메르 승려들은 모두 한 사원에 모여 함께 제례를 지내고 있었고, 사원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가장 크게 와닿은 특징은 모든 제례가 크메르어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사이공은 베트남 남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다. 그런 도시에서 크메르 사원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제례가 크메르어로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점이다. 크메르의 정체성은 크메르 사원과 불교를 통해 유지했다는 나의 논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광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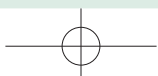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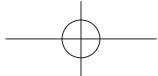
모든 승려가 크메르인이 아니라 일부는 베트남인으로 구성되어있는 것 또한 주목할만했다. 크메르어로 제례를 진행하는 행사에 승려 중 일부가 베트남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크메르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남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메르인과 베트남인의 조화였다. 이번 답사에서는 베트남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 북부를 모두 다녀왔다. 북-중-남의 사원을 다니며 크메르 사원이 베트남의 불교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크메르 불교가 단순히 한 종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크메르' 고유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답사는 나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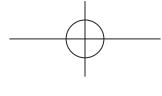
논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선 형식을 고치며 답답한 부분이 많았다. 교수님이 정해주신 가이드라인은 한국사 연구 투고지침이었는데, 나는 동남아사를 쓰기에, 내가 참고하는 모든 논문은 한국사 연구 투고지침과 형식이 달랐다. 한국사 연구에 투고할 논문이 아닌데 한국사 투고지침을 따라야 하는 괴리감은 심리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학과 자체에 정해진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논문 수업을 수강하면서 많은 부분이 허술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4년의 결과물인 논문을 제출했다. 엉성한 부분이 많아 자신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글이기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 4년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냈다는 데에 만족하고자 한다. 역사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그저 학사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외국사를 쓰는 학우들이 한국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글을 썼으면 좋겠다.

외국사의 설움을 딛고 4년의 마침표를 찍으며.





Instagram



꿈은 모르겠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취업은 해야 할 때

박지현(05)
KOFICE(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근무

1. 어쩌다 사학

학부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취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적성에 대한 고려나 청소년기에 품어왔던 낭만을 펼칠만한 여유는 없다. 전공은 내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족들의 안위와도 연결되므로, 전공 선택은 당사자를 넘어 집안의 선택이 된다. 실제로 인턴이나 대학생들을 만나 왜 그 전공을 택했냐고 물어보면 답은 대부분 두 개 중 하나였다. “취업에 유리해서”, “부모님의 추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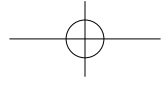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사학(史學) 어떨까? 취업에는 사실상 유리한 점이 없어 보인다. 전공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은 교직을 이수해서 역사 교사가 되거나, 학예사가 되는 방법 정도가 떠오른다. 그런데 시장 수요는 너무 적고 경쟁자는 많다. 부모님이 구태여 사학과를 추천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 인문학의 품위를 선망하더라도 자식을 선비로 만드는 모험을 감수할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어쩌다가 우리는 사학도가 되었다. 선택의 배경과 이유는 각자 다양하고 역사학에 대한 로열티 차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단기 목표는 비슷하다. 취업이다. 사학과 선택과 관계없이 이미 복수전공을 염두 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학만 해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괜찮은 직업을 갖기 어려우니까. 시장 경쟁력이 낮으니 당연히 다른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학교나 직장에 속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학교에 오래 머물다 취업이 확정되어야 졸업을 선택한다.

2. 전공 선택은 취업 설계의 시작일까?

작년 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니 수도권 대학을 가면 평균 5.5년이 지나야 졸업을 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 자기 전공을 그나마 살려 취업하는 경우는 약 30~40%인데, 취업하더라도 첫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생활 10년째인 내 경험상 1년 반이면 자신이 맡은 업무가 조금 익숙해져서 협업 기관이나 해외파트너와 이메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다.

임시 중심인 한국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모두 보냈다면 청소년기에 진정한 진로 탐방을 해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취업 진로는 ‘실제로 그 일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창 시절 학생의 태도로 ‘경험 쌓기’를 준비하다 보면 실전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인재 영입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보면 당황스럽다. 아무리 신입이라도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 바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일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닌 “일을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라면 선뜻 채용하기 어렵다. 내 일도 바쁜데 선생 노릇까지 하고 싶은 직장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인턴 면접을 자주 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다. 선택은 현실적이다. 열정과 간절함보다는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본다. 해외 문화 사업을 해야 하므로 외국어가 유창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나의 디렉션을 따라 현지 파트너와 소통하며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내가 없더라도 현장에서 맡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문서는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

그렇다면 전공은? 전공은 첫인상을 결정하지만 보통 그게 끝이다. 학부 전공의 전문성이 얼마나 얕은지 다 알고 있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가 일하는 공공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 연구직이 아닌 이상 전공에 따른 차등은 없다. 심지어 요새는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다. 전공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수업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묻는다.

결국, 전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추가로 했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왔으며, 결과적으로 “지금 당신이 왜 이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와 목표”이다. 이것 확인해야 이 친구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구체적이지도 않고 명확성도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생각과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 결국 “꿈은 모르겠고,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설령 관심이 있더라도) 취업을 해야 해서” 여기 와있다는 사실이 들통난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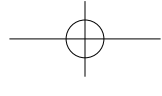
3. 전공은 생각만큼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

본문이 조금 길어졌지만 하고 싶은 말은 전공은 취업의 시작이 아니고, 생각만큼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사학을 했다고 해서 취업 시장에서 이미 밀려있거나 특별히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사학은 인문학으로서의 그 통합적 성격과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덕분에 어떤 진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졸업 후 첫 진로를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정했다. 1년은 열대 오지 사업 현장의 활동가로, 그 뒤 1년은 국제 개발 아젠다를 선도하는 사무국의 인턴으로 일했다. 역사학이 실무에 도움을 준 적은 정말 없지만, 처음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전문 지식과 아젠다를 접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했던 이 모든 경험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자산이 되었던 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서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모든 인간개발지수가 지구상에서 최하위다. 이런 지역에 대한 특정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접근 목표와 방법에서 이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선행할 수 있다. A 지역의 경우 남자들은 일하지 않는다. 돈을 벌거나 모을 생각이 없어서 일거리를 쥐도 오지 않는다. 재산 소유가 모두 여성의 권리인 모계 사회라 남자의 소득을 부인이나 어머니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마을에는 남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인프라 개발보다는 여성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보건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녀의 아이들과 남편은 더 쉽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현장에 있으며 실제 사람과 문화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과 사고방식 즉, ‘내가 보고 느끼는 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가 인류학을 공부했다. 수준 높고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나 자신은 많이 부족했지만, 잠시 몸담아 봤던 경험만으로도 현재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실무적인 도움은 여전히 없다. 그러나 현장을 해석하고 성과를 분석하는데 좀 더 남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전공이 큰 힘을 발휘해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 특히 내 취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대부분 면접관이나 상사들은 당신이 전공보다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인문학 전공자의 강점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야 한다. 인문학은 경영학이나 경제학처럼 고정된 지식정보가 아니다. 나라는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기체적인 힘이고 내공이어야 한다. 물론 굳이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인문학적 소양이 풍성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사학을 선택한 이상 이마저 갖추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

전공은 생각만큼 취업도, 인생도 결정 짓지 않는다. 인생의 변수는 너무나 많다. 하지만 그 전공이 인문학이라면 당신이라는 사람을 교양있게 사고하는, 일관된 주관을 가진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많이 열심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일목요연하게 글을 쓰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다.

4. 진로탐색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은 길다. 나라가 권고하는 정년은 60세이나 보통 이때 멈추는 사람들은 없다. 처음 대학을 입학했을 때와 지금 자신을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있을 것이다. 당장 큰 차이가 없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하게 되어 있다. 외모, 성격, 체력처럼 원래 나에게 주어진 특성도 변하고 정치적 성향, 사고방식, 감정 컨트롤 등 어른이 되고 나 자신을 알아가며 조금씩 형성되는 것들도 있다. 60세를 넘어서도 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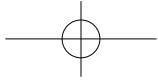
대학교 졸업 즈음에 정했던 첫 진로를 평생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때 진로란, 단순한 ‘직장(Work place)’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직업(業, Job)에 가깝다. 하나의 직장에도 여러 개의 직업이 있다. 내 직장의 경우 기획업무, 지원업무, 현장업무 등 다양한 업무들이 많은데 담당자의 성향이나 적성에 따라 배치된다. 공무원,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변하고 세상에 직업은 너무나 많기에 진로 탐색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 인문학을 백그라운드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없기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보다도 어떤 직업이 나와 잘 맞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취업 시장은 언제나 좁고 치열했다. 토익 900, 어학연수, 봉사활동, 인턴십, 제2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합격과 같은 평균 스펙을 갖추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고, 달성했다면 정말 잘해 온 것이다. 이와중에도 인문학도로서 강점을 잊지 않고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딜 가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정적인 지면을 그저 결론이 뻗은 수다로 낭비한 것만 같다. 학교나 사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선배로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지현

2005~2010 인하대학교 사학과 졸업

2011~2012 KOICA 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보건위생환경 개선사업’ 서부 수마트라
현장 근무

2012~20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팀 인턴 ‘아프리카 풀뿌리 문해교육 프로젝트’
사업 보조

2013~2016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2013~2016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연구보조원

2016~현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협력팀 근무





EDITOR

WOW~! HISTORIAN 12호가 발간되었네요!! 이번 호 또한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학과지의 고인물!! 17학번 유윤이입니다!!! 신입생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HISTORIAN 7호부터 이번 12호까지!! 벌써 총 6개의 학과지를 편집했네요. 처음 시작했을 땐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루기가 너무나 막막했는데 6번의 학과지를 거쳐오면서 이제 제가 다른 학우들에게 인디자인 기초 프로그램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고도 뿌듯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다루기에는 쉽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여기저기서 잘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다른 학우분들도 잡지 출간, 표지 디자인 작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작업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했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

-유윤이(17)-

안녕하세요! 저번 겨울에 이어 편집을 하게된 18학번 전지혜입니다! 한학기를 건너뛴 다음에 다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져서 모르는 부분, 잊어버린 부분들도 정말 많았지만 그때마다 윤이 언니와 조교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작업을 평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서영이와 채영이도 쉽지 않은 작업에서 서로 격려되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그에 정신적으로 한결 편안했던것 같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학과지 작업을 통해 선배님, 후배님들과 일, 그리고 소통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

-전지혜(18)-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HISTORIAN 편집에 함께한 19학번 장서영입니다. 평소에 정독해왔던 과 소식지 편집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저는 운 좋게 신입생 일 때 해외답사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답사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짚어보고자 답사 소감문 편집을 자원했습니다. 각자의 행복한 사진들을 넣고자 노력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같은 편집 팀에게는 중간에 개인 여행 일정으로 끝을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멀리서라도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과도 화이팅!

-장서영(19)-

안녕하십니까,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허채영입니다! 일 년 전엔 소식지를 받아서 읽었는데, 편집으로 참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처음엔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뤄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막상 다뤄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편집하면서 글들을 여러 번 읽다 보니, 작성자분들의 생각과 필체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편집을 통해 얇은 책자 속에도 여러 노력과 손길이 닿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엔 나눠주는 책자를 잘 안 보는 편이었지만, 앞으로는 책자들을 열심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교님 그리고 편집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소식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허채영(19)-



조교 한 마디

안녕하세요, 사학과 조교 이동륜입니다. 소식지 지면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2년이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하고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충분히 만족할만한 지원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함에도, 인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모두에게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학부 때 어찌 보면 간단한데도, 자기 졸업 조건을 모르고 나중에 4학년 1학기나 늦으면 2학기에서야 수강 지도를 받고 나서 제때 졸업을 못 한다든지, 혹은 무계획적인 다중전공 등으로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딱히 남들보다 잘 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교 공지는 열심히 읽는 편이었고 학사행정에도 관심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좀 늦었지만, 학과 조교를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 때 알았던 제도를 직접 공문을 쓰거나, 프로그램을 만져가며 해 나간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비록 짧았다면 짧은 2년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2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덕후(?)’라고 해야 할까요. 이 일을 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할 따름입니다. 답사도 학부 때 단 한 번 갔었고, 심지어 해외 답사는 학부생 때는 여력이 되지 않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교가 되어서는 네 번 모두 가게 되었고, 늦었지만 답사의 즐거움을 느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갔던 답사가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저 학교 및 학과 공지를 잘 챙겨 읽으시고 잘 모르겠으면 학과 조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이 차이 나고, 아는 후배들이 많지 않아서 조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서슴지 않고 다가와 준 후배들 덕분에, 적응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지만 다행히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 때 학교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학과 생활보다는 단과대학 생활을 많이 했었고, 동아리 생활도 짧지만 했었습니다. 문과대학 학생회 집행부를 두 번이나 했었고요. 원래 조교로서는 그러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학교생활이나 학생활동에 있어 막히는 부분이



조교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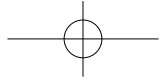
있을 때 조언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주제넘은 간섭 혹은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는 ‘꼰대’의 지적질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좋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인수인계를 받아도 잘 모를 지경이던,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제 임기 내내 가장 큰 도움을 주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도와준 윤이를 비롯해서, 소식지 편집에 참여하였던 역대 편집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방학 중인데도 편집 기간에는 오프라인 회의도 소집하고,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밤낮 없이 괴롭혔던 터라 한층 감사를 드립니다. 인원이 모자랄 때는 학생 자치기구에서 본의 아니게 편집위원을 추천을 요청했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협력적인 자세로 도와주셔서 소식지가 매 호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원고 작성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장의 글조차도 부담이 됨을 알지만, 모두의 글이 모여 빛나는 소식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한 달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학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와서 주변을 잘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2년간 학과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는 미지수지만, 앞으로도 더 발전해나갈 사학과를 믿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얼마간은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올 새내기들도,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도 모두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학과 화이팅!

사학과 조교
이동륜



학과 소식

1. 전공강의실 개선

가. LED TV 설치

5남 501, 5동 502 강의실에 대형 LED 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빔프로젝터 스크린이 잘 보이지 않던 자리에서도 컴퓨터 화면을 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 석면 천장 철거 및 책걸상 교체(5동 502호)

5동 502호의 천장 석면 마감재 철거 공사와 더불어 일체형 책걸상 교체가 방학 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중에 시행된 바닥 공사와 좋은 시너지를 이루어 한층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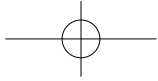
2. 연구년 소식

-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우경섭 교수님
- 연구년을 맞이하시는 최병욱 교수님(2020-1학기, 1개 학기)

3. 학과 유튜브 개설 및 학과 홈페이지 업데이트

답사 수업에서 동영상 제작을 최종 과제 목표로 삼음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브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메인에 배너로 링크하여 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과 홈페이지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종종 수정 및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기 때문에 학사 공지도 올라오니 종종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 홈페이지 주소 : <http://history.inha.ac.kr>



4. 답사 소식

2020년 춘계 학술답사는 영산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게 될 예정이며, 기간은 5월 6일(수)~5월 8일(금)이 될 예정입니다. 학술답사 과목으로는 '지역문화탐구 2' 과목이 열리게 되며, 지도교수님은 이영호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학 제도

<성적우수 장학금>

학칙 및 학과 내규 등에 의하여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학기별 지급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학칙)

가. 정규등록생

나. 수강 포기하지 않은 자

다. 1~3학년 : 16학점, 4학년(7차 학기) :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라. 평점 4.0 이상 (8차 학기자, 전과 이후 첫 학기인 자, 다른 장학금을 전액 이상으로 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선발 기준(학과 내규)

가. 학년별 안배 고려

나. 전공학점 9학점 이상 (적합자 없을 시 그 이하도 고려)

다. 전공필수 적시 이수 여부 확인 (누적하여 봄이 원칙)

라. 동점자 처리 기준 : 평점 평균 → 이수학점 → 전공 이수학점

※ 위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이수학기	전공이수학점 확인	심사시기	필수 이수과목
1학년 1학기	X	1학년 1학기 종료 후	역사학입문 + 한문 1
1학년 2학기	X	1학년 2학기 종료 후	한국사입문 + 한문 2
2학년	O	2학년 2학기 종료 후 (3학년 진급시)	동양어 원전읽기
3학년	O	3학년 2학기 종료 후 (4학년 진급시)	서양어 원전읽기, 세계사입문